

석촌동고분군 사회적경제 연계사업 기획 및 전략개발

2017. 06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제 출 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석촌동고분군 사회적경제 연계사업 기획 및 전략개발” 연구사업
(사업기간 2017년 4월 일 - 2017 6월 30일) 의 완료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연구 기관명 : (주)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연구 책임자 : 이동범 ((주)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대표)

연 구 원 : 조대호, 최효진, 임소영 ((주)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연구원)

자 문 위 원 : 권오영 (서울대 국사학과),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

신희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한재준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

목 차

I. 과업 개요	6
I.1. 과업 배경과 목적	6
I.2. 과업 범위와 방법	7
II. 지역 이야기 및 브랜딩 전략 개발	10
II.1. 석촌동 고분군 일대 문화관광 자원 현황	10
1) 현황 개요	10
2) 역사적 배경	12
3) 송파구 일대 한성백제 관련 유적	13
II.2. 석촌동고분군 일대 이야기 20선	17
II.3. 대표이야기 20선에 대한 의견수렴	64
1) 개요	64
2) 자문내용	65
3) 자문결과 반영	70
III. 석촌동고분군 연계 상품 기획	72
III.1. 이야기 연계한 브랜딩 전략 개발	72
1)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반을 둔 이야기 개발방향 설정	72
2) 한성백제 대표이야기 20선 선정	73
3) 지역이야기에 기반을 둔 한성백제 대표 유물 3종 도출	74
III.2. 사회적경제 활용 가능한 상품 기획	77
1) 대표유물 하나 : 백제의 동전무늬 와당(막새)	77
2) 대표유물 둘 : 칠지도(七支刀)	87
3) 대표유물 셋 : 돌무지무덤(석촌동고분군 3호분)	96

IV.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향후 과제 제시	100
IV.1. 석촌동고분군 연계한 사업 실행계획 수립	100
1)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00
2) 대표적 키워드와 추진 방향 확정	104
IV.2. 향후 지속 개발 과제 제시	105
1) 백제 유적지구와의 연계관광요소 접목	105
2) 과거 · 현재 · 미래를 아우르는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106
3) 관광 상품의 다변화	110

I. 과업 개요

I.1. 과업 배경과 목적

- 사회적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 해소, 다채롭고 풍성한 시민들의 삶을 위한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활성화를 추진한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
- 석촌동 고분군 일대는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적인 성장에만 치우쳐져 있어,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동반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간은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 등의 현대적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한성기(백제 전기) 백제 역사문화유산과 서울 유일의 호수인 석촌호수라는 자연유산이 한데 모여 있다. 이러한 자원을 연계 활용한다면 서울 동남권의 관광도시 중심축으로 거듭날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 지난 2013년, 송파구 국제관광과는 ‘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간 관광명소화사업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이하 관광명소화 사업)’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사업 기획 및 사업 추진전략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당 공간에 진입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 이번 연구에서는 석촌동 고분군 사회적경제 연계사업 종합계획의 기초적인 방향이자 일부분이 되는 ‘지역 이야기 및 브랜딩 전략 개발’, ‘석촌동 고분군 연계 상품 기획’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 중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중점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I.2. 과업 범위와 방법

○ 공간적 범위

- 석촌호수로 18길(너비 8~10m·총연장 300m) 및 석촌동고분군 둘레길 1,100m



그림 1 백제돌마리길, 2천년의 시간여행-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간 관광명소화사업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대상 사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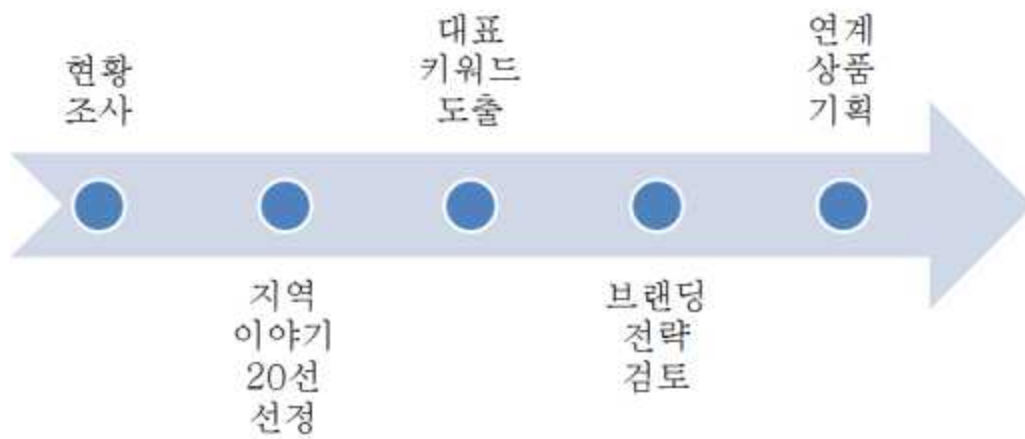
○ 시간적 범위

- 한성백제기 (기원전18년~475년)부터 현재까지

○ 내용적 범위

- 문화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지역 이야기 20선 선정, 대표 키워드 도출
- 브랜딩 전략 검토 및 석촌동 고분군 연계 상품 기획

○ 추진 방법



- 대표키워드 도출을 위해 각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브랜딩 전략 검토, 연계 상품 기획을 위해 내부회의 및 자문의견 수렴

II. 지역 이야기 및 브랜딩 전략 개발

II.1. 석촌동 고분군 일대 문화관광 자원 현황

1) 현황 개요



그림 2 송파구 소재 한성백제 유적 분포

석촌동고분군은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하여 석촌호수로18길을 중심으로 석촌호수, 석촌동 카페거리와 연결되어 있다. 인근에는 송파구에 걸쳐 롯데월드, 방이동고분군, 몽촌토성, 풍납토성 등 한성기 백제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석촌동고분군에서 직선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롯데월드·방이동 고분군·한성백제박물관·몽촌토성·풍납토성 순이며, 도로에 따라 이동할 때 석촌호수·석촌동 카페거리·롯데월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보의 이동은 어렵다.

관광명소화 사업 대상지인 ‘석촌호수로 18길’에서는 석촌동고분군·석촌호수·석촌동·롯데

데월드라는 주제가 중점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인근의 석촌동 카페거리와는 차별되면서도 연결점이 될만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석촌동·방이동 고분군 등으로 대표되는 ‘한성백제’라는 테마는 석촌호수로 18길과의 연계방안을 찾고, 더 나아가서 서울 동남권 관광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점 활용될 필요가 있다.

유형	콘텐츠	키워드
유적·유물	석촌동 고분군	왕릉급 무덤(근초고왕 추정), 돌무지무덤 분포, 피라미드형 - 출토유물: 금제 장신구 등 지배계층의 유물, 동전무늬 전문(錢文) 등 출토
	방이동 고분군	고분 분포, 백제무덤설과 신라무덤설의 공존 - 출토유물: 백제토기류, 신라토기류, 철제류 등
	몽촌토성	백제 왕성 추정(남성) - 중국 서진시대 동전무늬 자기조각 출토, 토기류, 철제 무기류 등
	풍납토성	백제 왕성 추정(북성) - 동전무늬 와당, 짐승무늬 와당 등 백제유물 다량 출토
역사성	한성기 백제	2000년 전 백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한성 백제의 수도로서의 기능과 지정학적 중요성(특히 하남 위례성)
	백제의 풍속과 문화교류	고구려, 신라와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백제문화(특히 놀이문화)의 흔적
지역성	돌마리(석촌동)	돌무덤이 많았던 마을, 석촌호수와 석촌동 고분군을 잇는 거리인 석촌호수로 18길은 일명 ‘백제 돌마리길’로 불림
	석촌호수	시민들의 휴식공간, 한강의 본류였던 곳, 삼전도비, 잠실섬
	한강	비옥한 토지(농토, 식수원, 농업용수), 지리적 중요성(주운로)

그림 3 서울 송파구일대 문화관광 자원 현황표



그림 4 한성백제왕도길 (이미지 출처: 송파구청)

2) 역사적 배경

한성백제는 위례성에 도움을 삼았던 건국 시초부터 웅진에 도움을 옮기기까지의 백제 전기를 말한다. 백제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 건국한 나라이지만, 점차 독자적인 문화를 갖추게 되었다.

백제는 온조왕(溫祚王)을 시조로 하여 현재의 한강 하류의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에 도움을 정하여 건국하였다. 온조는 고구려 주몽의 둘째 아들로, 주몽의 맏이인 비류(沸流)와 함께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거처를 찾았고, 하남 위례성을 택한 것이다. 《삼국사기》에서의 백제 건국 설화에서 “하남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동쪽으로 높은 산이 둘러 있고, 남쪽으로 비옥한 들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큰 바다로 가로막혀 있으니 쉽게 얻을 수 없는 요새입니다.”라는 구절이 나올 정도로, 하남 위례성은 도움지로서 최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에 축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 풍납토성을 보면, 백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중앙집권국가의 틀을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3세기 중엽 백제는 고이왕(古爾王)이 집권하며 좌평(佐平)을 두었고, 16품의 관등을 나누고, 관직의 품계에 따라 자주색·다홍색·푸른색 옷을 입게 하는 등 관직 체계를 한층 더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지배 체계의 체계화로 왕권강화를 이루었고, 대외협력과 영토확장을 추진하였다. 이는 4세기 백제가 전성기를 이룩할 밑거름을 다지게 된 것이다.

4세기 근초고왕(近肖古王)이 집권할 무렵에 백제는 문화·영토 등 종합적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평가된다. 근초고왕은 일본 야마토 왕조와 국교를 수립하며 칠지도(七支刀)를 보낸다. 이 유물의 명문(銘文) 등을 미루어보아, 근초고왕 때에 이미 야마토 왕조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대륙의 혼란한 틈을 타서 요서 지역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5세기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백제 개로왕이 전사하였고 수도 한성도 빼앗긴다. 웅진(공주)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대외팽창과 교류가 위축된다.



그림 5 백제 시대 타임라인

3) 송파구 일대 한성백제 관련 유적

○ 석촌동 고분군

석촌동에 있는 백제 전기의 돌무지무덤으로, 무덤이 군을 이루고 있다. 무덤은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듯이 네모진 돌을 계단 모양으로 쌓아 올려 이색적이다. 이곳에서는 백제 최고 지배계층이 사용하였거나 제례의 목적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금제 장신구, 유리구슬 등이 있다.

특히 석촌동 3호분이 주목된다. 대규모의 돌무지무덤이며 출토 유물이 4세기쯤의 것이라 하여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1호분은 북분과 남분이 연결된 쌍분으로, 북분은 고구려 돌무지 무덤 형태이나 남분은 백제화된 돌무지 무덤 형태로 남아 있다. 2호분, 4호분 등은 17m 내외 규모의 백제형 돌무지 무덤의 형태이다.



그림 6 석촌동 고분군 위성사진(네이버 지도)

○ 방이동 고분군

방이동 일대에 있는 한성기 백제의 무덤들이다. 일반적으로 굴식 돌방이 주류를 이룬 백제 고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6호 무덤에서 나온 회청색경질 굽다리접시의 경우, 굽구멍이 신라토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6세기 이후 한강 유역이 신라 영토로 편입되었을 때 만들어졌다는 신라고분설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7 방이동 고분군 위성사진(네이버 지도)

○ 몽촌토성

몽촌토성은 둘레가 약 2.7km 정도인 백제 전기의 토성으로, 하남 위례성의 남성(南城)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성은 해자로 둘러싸였으며,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급경사를 만들거나 성벽을 쌓았다. 나무 울타리로 목책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림 8 몽촌토성 전경(이미지출처: 문화재청)

이곳에서 동전무늬가 찍힌 자기 조각과 토기류, 철제 무기류 등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동전무늬 자기조각은 중국 서진 시대의 유물로 시대 확인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몽촌토성의 위치, 규모, 구조 및 출토유물을 볼 때, 한성 백제시대 군사적·문화적 성격을 볼 수 있는 유적이다.

○ 풍납토성

둘레 4km에 달하는 큰 규모의 토성으로 추정되어, 한성기 백제의 하남위례성 북성지로 알려져 있다. 1925년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로 인해 남서쪽 일부가 소실되어 약 2.7km 정도 남아있다. 풍납토성이 아파트 공사 사업지와 섞여있어 주민들과 보상비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풍납토성은 현존 우리나라 토성 중 최대 규모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성의 규모와 축성 시기 등으로 보아, 백제는 풍납토성 축성을 위해 연인원 약 100만 이상을 동원하였을 것이며 이미 상당한 수준의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성의 형태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타원형이다. 성벽은 고운 모래를 한 층씩 다져 쌓았으며, 동쪽에는 출입문의 흔적이 4군데 남아 있다.



그림 9 풍납토성 전경도

○ 돌마리(석촌동)

송파구 석촌동에 있던 마을이름으로, 석촌(石村)이라는 이름과 같이 인근에 돌이 많아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곳에 한성기 백제 고분군인 석촌동 고분군이 있으며, 돌이 너무 흔하여 마을 사람들이 고분의 돌 등을 이용하여 돌담을 쌓았다고도 한다. 또한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가 이곳에 돌을 옮겨 진터를 만들었다고도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의 《근세한국오만분지일 지도》에 “석촌동, 돌마리(石村洞, ドルマリ)”라고 표기해 둔 것으로 보아 근래까지도 석촌동을 ‘돌마리’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돌마리라는 명칭이 남아서 지역 곳곳에 돌마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1 1960년대 석촌동 고분 내에 있던 주민(김범만)



그림 10 1970년대 석촌동 고분군과 민가 모습

II.2. 석촌동고분군 일대 이야기 20선

석촌동고분군 연계사업의 주요 소재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 20선을 뽑아 사업추진의 재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석촌동고분군 일대가 한성백제로 공통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는 한성백제와 연관성이 있으며, 여기에서 ‘도시계획’, ‘왕성’, ‘왕릉’, ‘문화교류’, ‘민속 문화’의 총 5가지 분류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이야기는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그리고 왕릉으로 추정되는 석촌동 고분군 및 철지도, 동전무늬 와당 등 한성백제의 대표적인 유물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분류	no	주제	설명
한성백제의 도시계획	1	고구려의 온조 왕자, 한성에 백제를 세우다	기원전 18년,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가 서울 송파구 일대에 터를 잡고, 마한 54개 소국을 통합하여 백제를 건국함.
	2	기록에 나온 하남 위례성은 어디일까?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에 따르면 하남 위례성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추정됨.
	3	한강의 옛 모습과 백제인들의 치수(治水) 기술	백제 시기 한강의 이름 “옥리하”로, 당시 한강변은 매우 높은 지대였음. 또한, 백제는 풍납토성 주변에 제방을 쌓아 홍수를 다스리는 기술을 보유함.
	4	왕성과 왕릉으로 조성되는 고대 도시디자인	고대의 수도에는 왕의 살아있을 때는 생활공간인 왕성과 죽은 이후의 세계인 무덤이 한 곳에 위치해 있음.
한성백제의 왕성	5	1,500년을 버틸 만큼 튼튼한 토성을 쌓은 백제인들	풍납토성은 판축기법과 부엽기법으로 쌓아 천 년 이상을 튼튼하게 버틸 수 있었으며, 당시의 기술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전통 토목술임.
	6	풍납토성의 해자, 드디어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지다	2015년 5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풍납토성 동성벽 외곽 추정 해자 부지 발굴조사를 통해 추정으로만 밝혀졌던 해자를 처음으로 확인함.
	7	백제에도 ‘종묘’가 있을까?	풍납토성에는 왕의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인 동명사당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온조신, 즉 백제의 토착신을 숭배한 흔적으로 풀이됨
	8	풍납토성 발굴 이야기	1997년 정초(正初), 선문대 이형구 교수와 제자들은 연휴도 반납하고 풍납토성 일대를 조사한 결과, 당시로서는 백제의 첫 왕성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9	관리당국의 문화재 보존 지침을 만든	2000년 5월, 이른바 백제유적 테러사건으로 불리는 굴삭기 사건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지침과 관

분류	no	주제	설명
		풍납토성 ‘굴삭기 사건’	련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연간 5조원 이상의 문화재 보존 예산을 마련하게 됨.
	10	자연지형 그대로 지은 왕성, 몽촌토성	몽촌토성은 타원형의 야산 위에 조성되어 있어, 방어적 성격이 강한 성으로, 움집, 지하저장 구덩이, 철제화살촉 등 출토 유물로 당시 성을 지키던 백제 군인들의 일상을 상상할 수 있음.
	11	88올림픽드림과 몽촌토성 발굴 30년사	현재 몽촌토성 일대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준비를 앞두고, 긴급발굴조사에 들어갔으며, 그로부터 30년 후인 지난 2013년 복문지 주변을 중심으로 더 많은 발굴 성과를 보임.
한성백제의 왕릉	12	백제의 고분박물관, 석촌동고분군	석촌동 고분군에는 움무덤, 돌무지무덤, 독문덤 등 백제의 모든 고분양식이 모여 있음
	13	한국의 피라미드, 돌무지무덤	석촌동고분군의 여러 형태의 무덤 중에서 3호분은 돌무지무덤으로 이는 고구려계통의 문화 수용의 흔적을 보여주며, 이와 더불어 제단을 연상시키는 신성성을 가짐.
	14	석촌동고분군 3호분의 주인은 누구?	석촌동고분군 3호분은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고대 다문화(多文化) 사회의 통합의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음.
	15	방이동 고분군은 신라 유적이다?	석촌동 고분군과 함께 대표적인 한성백제 유적으로 알려진 방이동 고분군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되어 있어 신라유적으로도 추정하는 견해가 있음.
한성백제의 문화교류	16	당대 최고의 트렌드 ‘메이드인차이나’ 수입의 흔적, 동전무늬	당대 최신 트렌드 중국과의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동전무늬 수막새는 삼국 가운데 가장 ‘한성백제다운’ 성격을 가짐
	17	왜왕에게 하사한 백제 왕세자의 선물, 철지도	철지도는 백제 철기 문화의 결정체로, 그 안에 담고 있는 문화코드는 매우 다양함. 나뭇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 수목 숭배 사상과 도가적 주술과 기복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음.
	18	해양강국 백제의 민고 보는 조선(造船)기술	한성백제 시기 서해안 문화권에서 패권을 장악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백제인들의 배 이야기
한성백제 민속문화	19	토기로 살펴보는 백제인들의 식문화	풍납토성, 몽촌토성 등지에서 발견된 백제식 토기와 관련 기록을 통해 읽는 백제인의 식문화
	20	한성백제, 진짜 바둑 때문에 망했나?	백제 바둑고수 개로왕과 고구려 간첩승 도림 스님의 한판승부와 백제 왕실에서 일본에 보낸 바둑판 선물의 복원스토리를 통해 백제의 수준 높은 놀이문화와 공예기술을 알아봄

표 1 석촌동고분군 일대 이야기 20선 목록

□ 한성백제의 도시계획

① 고구려의 온조왕자, 한성에 백제를 세우다¹⁾



그림 12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 상상도
(이미지출처: 문화콘텐츠닷컴)

백제는 고대 한반도 중·서남부에 위치하여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모두 678년의 역사를 가진 왕국이다. 백제의 건국은 삼국 가운데 고구려 시조인 추모왕의 왕비인 소서노와 아들 비류·온조 형제가 한반도 북쪽에서부터 남하하여 형 비류는 미추홀, 즉 지금의 인천에 정착하였고, 아우인 온조는 위례성, 즉 지금의 서울지역에 정착하여 각각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비류국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미추홀의 지리적 특성상 활발한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이며, 온조의 십제국은 위례의 한강유역의 비옥한 토지를 이용한 높은 농업 생산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온조의 나라가 더 강성해져 비류가 죽고 난 후 비류국의 백성들을 통합하여 백제가 건국된다.

본래 한반도의 중·서남부 지역에는 비류와 온조가 정착하기 이전부터 이곳은 ‘마한’이라고 하는 54소국 연맹체가 있었지만, 백제도 그 일원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는 마한소국들과는 다른 선진 철기기술과 북방의 기마적 특성을 살려 마한 소국을 차례로 정복·통합하여 이 지역의 유일한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백제’라는 나라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100개의 집단(집안)이 바다를 건너와 세운 나라’라는 의미가 있다. 둘째로 ‘100개의 나루터(항구·선착장)를 가진 나라’라는 뜻과 마지막으로 온조가 세운나라 즉 십제에서 비류가 죽고 비류의 나라를 통합하면서 ‘백성들이 즐겁게 따랐다’는 의미에서 백제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세 가지의 유래가 모두 백제의 해상왕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

1) 출처: 백제건국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대백제이야기), 2007. 한국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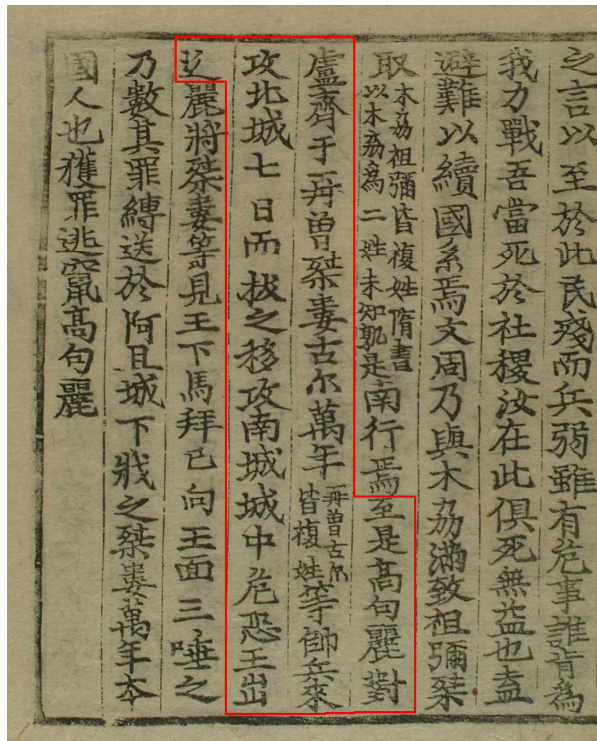
실은 분명하다. 백제는 일찍부터 아시아에서 중국대륙과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해상교류를 통해 이어주는 가교 역할은 물론, 때로는 직접 중국대륙과 일본열도에 진출하여 동아시아의 해양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해상왕국인 백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역시 수많은 섬과 리아스식 해안 그리고 내륙을 흐르는 강으로 구성되어 있어 ‘100개의 나루터가 있는 나라’라는 명칭의 유래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3 서울 송파구 일대에 터를 잡는 비류·온조 형제 (이미지출처: 서울스토리)

② 기록에 나온 하남 위례성은 어디일까?

백제 도성은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에서 북성(北城)과 남성(南城), 대성(大城)과 왕성(王城)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2개의 성은 아래의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고구려의 대로(對盧) 제우(齊于), 재증걸루(再曾架婁), 고이만년(古尔萬年) 등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성을 공격하여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병사를 옮겨 남쪽 성을 공격하니 성 안이 위기와 공포에 빠졌다. 임금은 탈출해 달아났다.” -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²⁾

“백제기에 따르면, 개로왕이 다스리던 을묘년 겨울에 고구려 대군이 와서 대성(大城)을 7일 밤낮으로 공격하였고, 왕성(王城)이 함락당하여 마침내 위례국을 잃게 되었다. 왕과 왕비, 왕자 등은 모두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 - 일본서기, 웅락천황³⁾

그림 14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 백제 남성과 북성이 함락당한 후 임금이 탈출해 달아났다는 기사(옥산서원본)

“이 하남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漢水, 한강)가 흐르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둘러있고, 남쪽으로는 비옥한 들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로 가로막혀 있으니 얻기 어려운 요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⁴⁾

- 2)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至是高句麗對盧齊于·再曾架婁·古尔萬年再曾·古尔皆複姓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王出逃.”
- 3) 일본서기, 웅락천황. “百濟記云, 盖鹵王乙卯年冬, 狛大軍來, 攻大城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國. 王及太后王子等皆沒敵手.”
- 4)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역사적 기록에 나타난 백제의 2개의 성이 어디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과 조사연구가 있었다. 그 결과 풍납토성을 북성(대성), 몽촌토성을 남성(왕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 낮은 구릉을 이용해 만든 몽촌토성은 백제초기 토성으로 알려져 왔으며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한 이후, 공원으로 개발하면서 유물들이 출토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토성으로 몽촌토성의 바로 옆에 위치한 풍납토성이 거론되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한강이 범람해 풍납토성의 서쪽 성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제사용품인 초두와 항아리가 발견되어 잠시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이후 몇 십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본격적인 풍납토성의 발굴과 성벽 내부의 조사를 통해 풍납토성의 건축기법과 규모가 드러나면서 이곳이 백제 초기의 왕성 위례성이었다는 확신을 주게 된다. 단순한 토성으로 생각하던 풍납토성의 규모는 최대 폭이 40m, 높이 15m에 이르고 그 길이가 3.5km에 이른다. 또 고운 흙을 골라내어 일정한 간격에 나무틀을 대고 쌓은 다음, 여러 겹으로 다져 쌓아 마치 벽돌을 쌓아올리듯 만든 판축기법을 사용해 견고한 성벽을 구축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성벽을 쌓기 위해 동원된 흙만 해도 150만 톤(10톤 트럭 15만대)에 이르고, 연 동원인력만 해도 138만 명이 만든 토성이다. 이는 강력한 왕권이 없이는 불가능한 토목공사였다. 탄소동위원소 측정을 통해 이 성이 기원후 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져 백제초기의 왕성임이 확실해졌다. 이로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각각 북성과 남성으로 2성 체계를 갖춘 백제의 왕성이었을 것이라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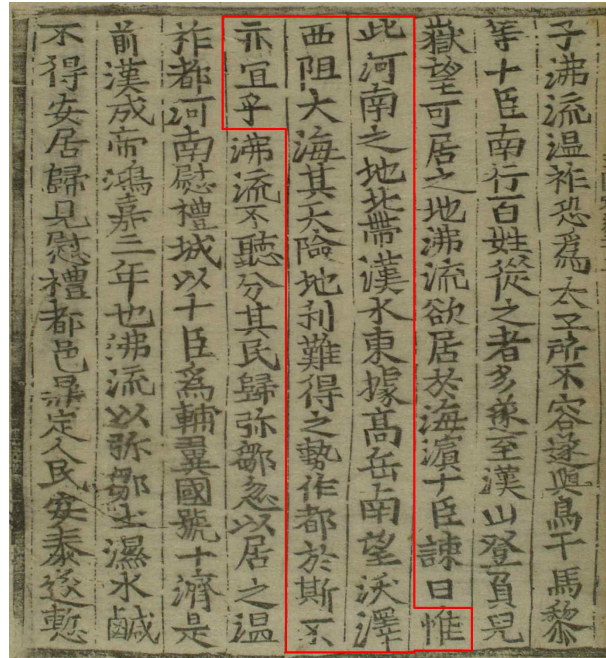


그림 15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 하남의 땅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옥산서원본)

③ 한강의 옛 모습과 백제인들의 치수(治水)기술

풍납토성 발굴 당시 많은 이들이 ‘백제가 왜 홍수 우려가 많은 한강 바로 옆에다 왕성을 만들었겠느냐’고 말하며 많은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삼국시대 한강의 모습은 지금과 당시 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세 초반 이 지역 물길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 결과 많은 지도들이 제작되는데, 당시 잠실 지역 지도에는 ‘부리도(浮里島)’라고 불린 섬이 보인다. 큰 물이 지면 물이 들어오고 오직 이곳만 물 위에 떠 있는 듯 하다는 데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금의 잠실 북쪽은 샛강으로 강폭이 좁았고 석촌호수 주변이 한강의 본류였다. 1970년대 이후 개발 과정에서 잠실 북쪽을 증설하여 강폭을 넓혔고, 본류인 잠실 남쪽을 매립하면서 일부 흔적을 남긴 것이 지금의 석촌호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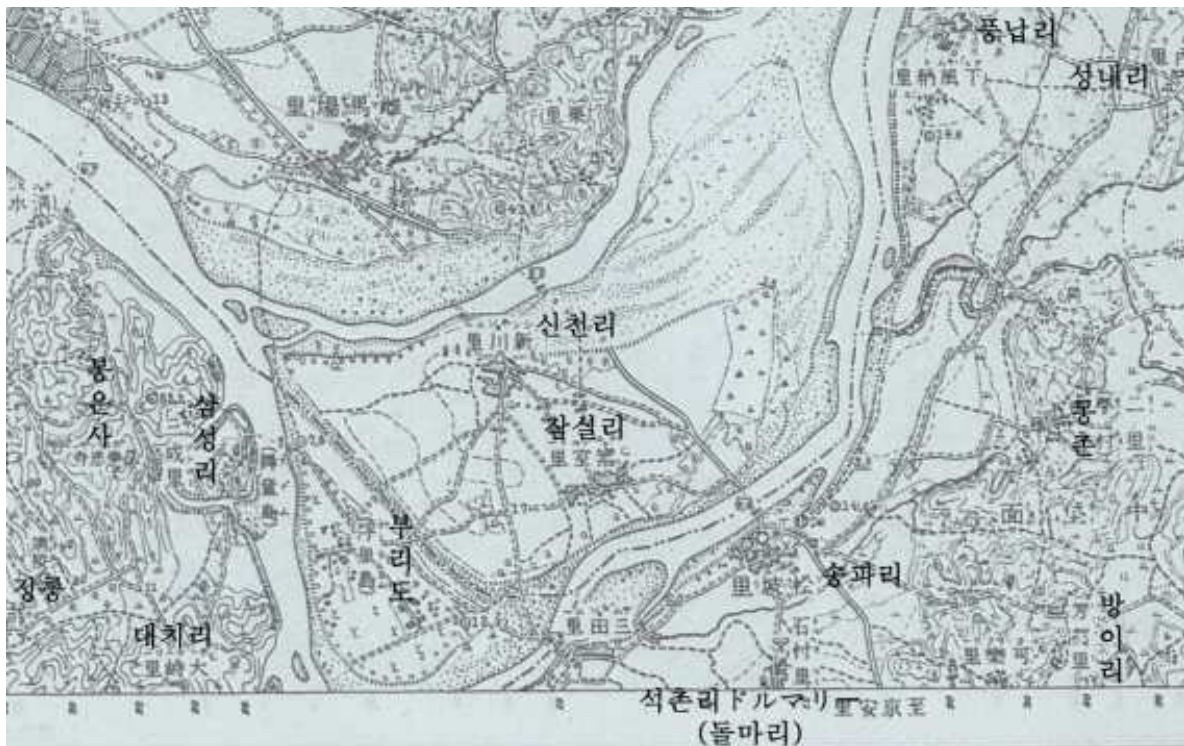


그림 16 근세한국오만분지일 지도 - 당시 섬이었던 부리도(신천리, 잠실리)의 모습



그림 17 석촌리의 한자와 가타카나 표기



그림 18 잠실지역 물길 변화
(blog.daum.net/tomatomark/869)

그렇다면 한성백제 시기 한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발굴 초기 많은 이들이 주장한 대로 홍수의 위험을 많이 담고 있었을까? 물론, 풍납토성이 위치한 송파구 일대가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잦은 물난리를 겪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백제 시대에는 지금보다 한강 밑바닥이 훨씬 낮았으며 그래서 홍수의 위험은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항공사진을 통해 한성백제기 도성권의 지형경관 연구를 한 바 있다.⁵⁾ 이홍종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이 연구에서 1966년, 1974년, 1988년 시대별 항공사진을 여러 장 분석해 풍납토성 내 왕의 처소와 묘역 등 유적 위치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풍납토성은 수차례 한강의 범람과 퇴적 탓에 자연제방이 생기면서 입지했고, 주변 석촌동 고분 일대는 대규모 침식 단구가 확인돼 구석기 이후 전 시기에 걸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풍납토성 북쪽 성벽의 잔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외곽의 해자는 자연적인 것이 아닌 대규모 토목공사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백제인들이 물을 잘 다스리는 기술이 뛰어났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옥리하(郁里河, 백제시대 한강의 이름)에서 큰 돌을 캐다가 괵(槨)을 만들어 부왕(父王)의 뼈를 장사지내고 강가를 따라 독을 쌓았는데 그 독이 사성(蛇城) 동쪽에서 시작해 송산(崇山) 북쪽까지 이르렀다.” -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⁶⁾

5) “항공사진으로 '찾아낸' 풍납토성 한성백제 왕의 처소” 연합뉴스 2016년 1월 3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30/0200000000AKR20151230080000004.HTML>

6)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又取大石於郁里河，作槨以葬父骨，緣河樹堰，自蛇城之東，至崇山之北.”

여기서 말하는 ‘옥리하’는, 지금의 한강이다. 사성과 송산이 어디인지는 확실치 않다. 백제는 이 두 곳을 연결하는 한강 둑, 즉 제방을 쌓았다. 백제가 물을 다스렸다는 기록이다. 따라서 풍납토성이 홍수 우려가 많은 한강 옆에 위치해있었다고 해도, 백제인들은 이에 대한 치수(治水) 기술을 발휘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풍납토성 발굴책임자였던 신희권 교수는 동아시아의 모든 고대도성이 그러하듯 한강과 같이 큰 강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도성을 지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전략적으로 한강은 북방으로부터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자연적 방어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인적 물적 교류의 허브가 된다. 또, 전쟁 등과 같은 유사시에 도피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강과 가까운 위치에 토성을 지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백제 첫 도읍지로서 풍납토성에 대한 입지상의 문제점을 별다른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실제로 풍납토성에서 출토되는 백제의 원거리 교역품을 보면 수운을 통한 근거리 왕래는 일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림 19 1966년 항공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풍납토성 일대 (서울시 제공)

④ 왕성과 왕릉으로 조성되는 고대 도시디자인

고대국가에서는 왕의 생활공간인 궁궐과 무덤이 멀지 않다. 고대사회는 수도가 곧 왕이 사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왕의 생전 공간과 사후의 공간인 무덤이 한데 어우러진다. 웅진백제 유적지인 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 사비백제 시대 수도인 부여의 나성과 능산리고분군의 지리적 위치를 보아도 짐작된다. 공주와 부여의 왕성과 왕릉은 1~2km 내외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그림 20 무령왕릉과 웅진 왕궁추정지(네이버 지도)



그림 21 부여 능산리고분군과 부여 나성(다음 지도)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현 중국 지안시)을 보면 ‘망자의 도시’라고 할 만큼 무덤이 많다. 국내성 주변으로 압록강을 끼고 돌무지무덤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후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가, 국내성에는 더 이상 무덤 쓸 자리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무덤이 많았다. 이때의 무덤에 대한 관념은 지금 우리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내세사상이라고 해서 삶이 계속된다는 사상이 있고, 무덤이 왕실과 귀족가문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림 22 고구려 국내성과 무덤군 지역간 거리

한성백제 시기 수도였던 서울 송파구 일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은 성벽간 거리가 대략 800m에 불과하다. 한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서는 도로가 발견되었다. 한성백제 때 도로는 자갈과 돌을 깔아 포장도로를 만든다. 마차들이 다니고 길 옆으로는 ‘측구’라고 하는 배수로를 두었다. 또한 1917년 일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 290여기의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00년 한성백제 시기 동안 재위한 왕은 스무 명 정도다. 이들의 무덤은 도읍이었던 위례성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적은 석촌동 고분군과 방이동 고분군뿐이다. 서울 한강이남 지역에서 발견되는 초기 백제 고분들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석촌동, 방이동과 최근 발굴된 경기도 판교 지역에 분포해있다. 이 지역에서 발굴되는 무덤은 한성백제를 세운 이들이 매우 다양한 문화적 뿌리를 갖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북방, 즉 고구려계 이주민을 지배세력으로 하고 한강 주변 토착민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는 점이다.

□ 한성백제의 왕성

⑤ 1,500년을 버틸 만큼 튼튼한 토성을 쌓은 백제인들

판축법과 부엽공법을 활용한 토성 건축

풍납토성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축성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맨 먼저 성벽을 쌓을 때 흙을 시루떡처럼 다져쌓는 ‘판축기법’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안팎의 표면에 강돌을 덮었던 흔적을 확인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성 안쪽으로만 성벽을 덧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의 맨 아래층은 점성이 강한 빨흙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성벽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측면이나 하부에서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응용되는 전통 토목술이다. 풍납토성의 가장 안쪽 흙벽은 나무로 직사각형 모양의 틀을 3단으로 만들고 그 안에 빨흙을 넣어 강도는 높였다. 목재가 빨흙의 보강재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빨흙 사이에는 인위적으로 나뭇잎이나 나무껍질, 벼짚 등을 깔고 있는데 풍납토성 내벽에는 식물 유기체를 겹겹이 깔 것이 확인됐다. 이른바 ‘부엽공법’으로 불리는 이 공법은 고대 일본에서 이후 제방을 쌓는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

풍납토성 축성에 동원된 인원은 얼마나 될까?

풍납토성은 총 길이 3.5km, 폭 43m, 높이 15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지어졌다. 전체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당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야 효율적으로 축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벽 둘레 3.5km를 쌓기 위해서는 연인원 1백만 명 정도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4~5세기 백제 추정인구는 70~8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본다면, 엄청난 노동력이 동원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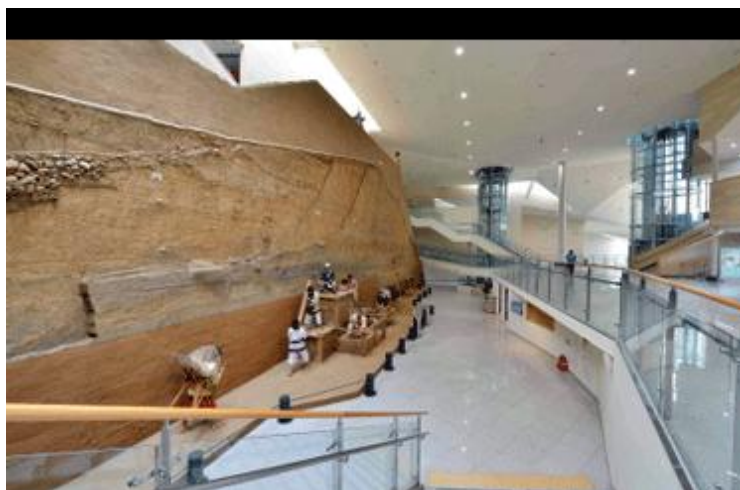


그림 23 한성백제박물관 풍납토성 성벽단면 전시
(이미지출처: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⑥ 풍납토성의 해자, 드디어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지다

풍납토성은 성벽 안쪽에 배수로를, 바깥쪽에는 해자를 만들었다. 인근 성내천은 자연해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풍납토성은 해자와 목책을 갖춘 방어적 성격을 가진 성이다. 1916년 조선총독부 발간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풍납토성 주변에 해자(垓子)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2015년 5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풍납토성 동성벽 외곽 추정 해자 부지 발굴조사를 통해 추정으로만 알려진 해자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당시 확인된 해자는 완만한 경사도를 둔 체성부(體城部)의 말단부에 마치 역사다리꼴 형태로 조성되었다. 해자 규모는 상부 폭 13.8m, 하부 폭 5.3m, 깊이 2.3m이며, 바닥은 하상 퇴적층인 자갈층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동성벽 외곽에 흐르는 구하도(舊河道)는 이 해자보다 약간 서쪽으로 다가선 채 지난 세기 중반까지 흐르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2003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서성벽 인근 발굴조사 설명회에서 “성벽 아랫부분과 해자에 깔았던 자갈 다짐 층과 함께 경질 무문토기를 비롯한 출토 유물 10여점을 발견했다. 성벽의 남북 10m, 동서 40m를 절개해 조사한 결과 지표면 아래 7m지점부터 지름 10cm이상의 자갈이 24m이상 깔려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발견된 자갈층은 발굴지역이 올림픽대로에 막혀서 더 이상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위에 덮인 개흙층 두께를 분석해보니 수심 3~4m깊이에, 경사 및 진행방향을 보아 폭 최대 60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011년 5월부터 서울시는 동성벽 외곽의 해자에 대한 발굴조사에 들어갔고, 2015년 발굴조사 때 구체적으로 해자에 대해 밝혀졌다.

해자는 주로 성곽과 고분 주변에서 발견된다. 해자는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가 주 목적이다. 또한 식수의 확보, 성 안의 물과 오물을 바깥으로 배출하거나, 선박을 이용하여 물자를 효과적으로 운반하고 접안하는 기능 등 다양하였다. 특히 자연 하천을 해자로 삼은 경우, 해자는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24 풍납토성의 해자터 (이미지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⑦ 백제에도 ‘종묘’가 있을까?

백제인들은 어떤 종교를 가졌을까? 일반적으로 백제를 비롯한 삼국시대 종교를 불교로 알고 있는데, 불교가 백제에 들어온 것은 침류왕 1년인 384년이다. 그 전에는 토착신을 믿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한성백제 사람들은 나라를 세운 온조 임금과 그 아버지인 주몽을 신으로 모셨다고 알려져 있다. 조상들도 신이 되어서 후손들을 돌봐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풍납토성에 최근 발굴된 경당지구는 바로 이들을 모신 공간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당지구는 최고급 제사용 토기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백제판 ‘종묘’라고도 부를 만하다. 한성백제 시기 왕들이 즉위하면 자신들의 직계 조상이자 건국시조인 동명왕을 섬기는 의식을 치렀을 것으로 보는데, 학자들은 바로 풍납토성 한가운데 ‘경당역사지구’라고 불리는 곳 일대를 ‘동명사당’일 것으로 추정한다. 경당역사지구란 이름은 원래 이 지역에 ‘경당연립빌라’라는 주택이 있었는데, 그곳의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백제 유물이 많이 나와서 유물 발굴 이후 그렇게 부르게 됐다. 경당연립빌라 재개발을 전후해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제사 관련 유물이 계속 발굴되었지만, 전체 사당 면적 가운데 20%에 불과한 부분만 세상에 알려졌다. 경당지구는 그 핵심 지역에 해당한다. 1999~2000년 한신대 박물관이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해 유적의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고, 수천 점의 토기와 기와 등 많은 유물이 여기서 나왔다. 한성백제 시기 왕족과 귀족 등 상류층 사람들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고급 유물이 대부분이었다. 2008년 2차 발굴조사를 통해 특수한 성격의 우물과 창고 등의 시설물이 있었음이 알려졌다.

경당지구는 풍납토성 안에서도 지대가 약간 높다. 분명 무슨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는 자연적인 요소다. 이른바 경당지구 제44호 구덩이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자 여(呂)자형 건물터가 보인다.



그림 25 풍납토성 경당지구 44호 건물 예상복원 전시물(한성백제박물관)



그림 26 경당지구에서 발굴된 여자형 건물터와 9호 구덩이. 이 곳에서 말머리 뼈가 나왔다.

그중 남쪽의 작은 공간(전실)은 입구로, 동서 5.2m, 남북 6.2m 규모로 되어 있고, 북쪽의 큰 공간(후실)은 이보다 더 크다. 두 공간은 나무 다리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후실은 모래땅을 파고 그 내부에 흙을 깊이 1m가량 다져 쌓아 기초를 다지고 주변에 도랑을 둘러쌌다. 후실 바닥에는 원형과 반원형의 기둥 구멍이 3개씩 짝을 이루어 배치되었다. 맨 아래 구덩이를 파고 판석을 깔 후 숯을 놓은 흔적이 있다. 숯은 건축학적으로는 제습작용을 하고, 문화적으로는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이한 것은 이 지점에서는 유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구조적으로 누군가 계속 비워두고 청소한 듯한 흔적이 있다. 이곳에 동명왕을 모시기 위한 제단 등을 설치하고 정성들여 관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당지구 9호 구덩이에서는 10여개 정도의 목 잘린 말머리 뼈가 나왔다. 아마도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 경당지구에서 발굴된 말머리 뼈

⑧ 풍납토성 발굴 스토리

풍납토성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 1997년 이 지역에 ‘현대리버빌아파트’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선 자리에 처음으로 문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원래는 성벽라인만 사적지로 묶여 있었고 성안은 사적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곳에는 지속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택지역이 계속 들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1997년 1월 2일, 선문대 동양고고학연구소 소장이었던 이형구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지표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반전의 이야기를 쓰게 된다. 여기에는 한 해가 시작되는 정초(正初)라는 시기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보통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사고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외부인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데 1월 2일이었던 당시, 공사장 인부들도 현장에 없어서 가림막 등이 열려있었다. 경비인이 문을 열어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교수와 학생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려면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해서 지표면에서 3~4m 땅을 파는데, 이렇게 파놓은 곳에서 백제 토기가 빼곡하게 박혀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목격된다. 당시 풍납동식 문무 토기, 낙랑 계열의 타날무늬토기 등이 발견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교수는 풍납토성이 하남 위례성임을 확신하였다. 이 교수는 즉시 문화재관리국에 신고를 하여 아파트 공사를 중단시켰고,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9개월간 발굴조사에 들어갔다. 문화재신고가 들어가면 공사가 중단되고 건설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재개발에 참여한 주민들 역시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쉬쉬하면서 공사를 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풍납토성 백제 첫王城 확실”

풍 납토성이 벼일에 싸인 백제 초기의 역사를 풀어줄 열쇠로 떠올랐다. 백제의 첫 도읍지인 한남대(현영동)로 추정되는 서울 풍납토성에서 백제 초기(현성시대·기원전 18년~기원후475년) 집자리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항해의 기와 등이 출토됐다.

이는 지난 4월 토성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백제 유물에 이은 또다른 백제라 고고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풍납동 긴급발굴 조사단」(단장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풍납동 246의 3 일대 풍납동 제1지구 재개발아파트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백제 초기 집자리 8기, 이형(異形)기와, 토기 파편, 철기류 등 유물이 대량 발굴됐다. 지난 7월 발굴조사단이 아파트공사가 시작돼 긴급 구원발굴 조사단은 시공조사에 이어 유물조출중이 상여있

집터·기와등 대량발굴 의미

도랑·부뚜막등도 발견
초기 한성시대것 추정

“대규모 주거시설 밀집
초기백제 귀중한 사료”

• 문화재연구소 풍납동연구소




그림 28 경향신문, "풍납토성 백제 첫王城(왕성) 확실", 1997.12.08

34

서울특별시 사회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이 때 발견된 유물 중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였던 기와와 전돌, 초석, 장식용 와당 등이 발견되어 이곳이 범상한 건물터가 아님이 드러났다. 도랑, 부뚜막 등 초기 한성백제의 집 자리가 주로 나왔고, 풍납토성의 건축 기술 또한 당시 발굴로 알려졌다. 황토와 모래를 수십 층으로 쌓아가며 사용하였고, 특히 외부에서 가져온 흙을 곱게 쳐서 사용하는 등 고도의 기술이 도입된 흔적을 발견했다.

한편, 발굴이 진행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가 강제로 중단되어, 재건축을 원하던 지역주민의 강한 항의가 이어졌다. 현대아파트 공사를 무효로 하게 되면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보상을 해야 했다. 결국 발굴 이후 아파트 신축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결론짓게 됐다. 도시개발 논리가 문화유산 보전과 연구보다 더 앞서던 시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1997년 이후 풍납토성 내부의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왕궁터를 비롯한 중요한 유적이 계속 발굴되면서 급기야 2001년 4월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풍납토성 내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지하 2m, 지상 15m 이내의 범위에서 기존 건물의 증·개축만 허용한다고 의결하였다. 또한 모든 공사에 앞서 문화재 전문공인기관의 조사 후 건축을 시행하되, 풍납토성 학술조사는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일원화하여 정부가 직접 조사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풍납토성 내부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⑨ 관리당국의 문화재 보존 지침을 만든 풍납토성 ‘굴삭기 사건’

풍납토성이 지금처럼 보존될 수 있던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풍납토성 ‘굴삭기 사건’이다. 서울 송파구 풍납1동 경당지구 대동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1999년 9월부터 초기 백제유적이 나오면서 재건축 공사가 계속 미뤄지자 2000년 5월 13일, 굴삭기를 동원해 7기의 유물을 훼손했다. 1995년부터 5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유물발굴 등을 이유로 공사를 계속 지연시킨 데다 유물 발굴비용 2억 7천여만 원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킨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강력한 지침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유물발굴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대부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유물들이 많았다. 발굴 결과 당시 까지 200여 기의 유적이 확인되고 450상자 분량의 각종 초기백제 유물이 출토됐다. 이중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동서쪽으로 16m가 드러나고 남북쪽으로 현재까지 14m가 확인된 대형 건물터와 최대 길이 9m, 깊이 2.5m 가량이나 되는 대형 구덩이 유적이었다. 커다란 돌을 초석 비슷하게 깔아놓은 이 대형 건물터는 규모가 엄청나거니와 구조로 보아 제사 터 같은 공공건물 시설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구덩이 유적은 쓰레기장이었던 듯 토기 같은 각종 생활용품이 쏟아져 나왔다. 구덩이 출토 유물 중에는 ‘대부(大夫)’ 및 ‘정(井)’이라는 글자가 적힌 토기가 있었고, 아래턱만 남은 말뼈 14마리 분이 확인됐다. 출토 유물이나 유적으로 보아 풍납토성이 당시에 대단한 인구 밀집 지역이었고 대단히 중요한 성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만은 분명했다.



그림 29 조선일보, “우리가 문화를 논할 자격이 있다”, 2000. 5. 16.

굴삭기 사건이 터진 후 3일 만인 5월 16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풍납토성이 정말로 하남위례성이라면 돈은 얼마가 들든지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1500년 전 시대의 역사고증이 될 수도 있고 삼국사기 등과 대조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후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말했다. 그 후속조치로 문화재위원회가 5월26일 이곳을 사적으로 지정한다는 결정까지 하게 되었다.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전체 22만평을 모두 보존할 경우 총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관계부처와 보상재원 확보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5조원은 국가 문화예산 2,500억 원의 20년 치로 엄청난 규모였다.

한편, 이 사건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법률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은 발굴 작업에 따른 비용을 건축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한신대 풍납토성 발굴팀과 재건축조합원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한신대 발굴팀은 200만원이었던 하루 발굴 단가를 180만원까지 끌어내렸고, 영세 상인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원들은 공사지연과 이자 손실까지 따른 부담까지 떠안으며 발굴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한신대 발굴팀이 조합 측에 약 8,800만원 수준의 보고서 발간비용을 더 내라는 요구를 하자, 주민들이 ‘굴삭기’를 이용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문화재 발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관련 당국은 노력하게 된다.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고 되어 있다.

⑩ 자연지형을 이용해 지은 왕성, 몽촌토성⁷⁾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몽촌토성은 한성백제 시기인 3~4세기에 만든 성으로 추정된다. 남한산성에서 뻗어 내린 구릉지의 지형을 이용해 외성과 내성의 이중구조로 축조한 독특한 성이다. 야산 위에 진흙으로 쌓아 만들었다는 점, 2m가 넘는 목책과 그 아래에 해자의 흔적으로 보아 방어를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생토 암반층에 1.8m 간격으로 직경 30~40cm 깊이 30~90cm의 구멍을 파고 큰 나무를 박아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조기둥을 세운 형식이었다. 현재 몽촌토성에 재현된 목책은 발굴 조사된 원래의 목책기둥 자리를 따라 그 위에 추정 복원한 것이다.

성의 둘레는 약 2.7km, 높이는 6~7m이다. 이곳에서는 백제인들의 일상을 알려주는 다양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흙을 파서 만든 움집과 지하 저장 구덩이, 철제 화살촉, 독무덤, 원통형 토기조각, 갈색회유전문토기조각 등 중요한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집자리의 부뚜막은 음식을 끓이고 조리하는 시설로, 돌과 흙으로 만들었는데 앞부분에는 불을 지피는 아궁이가 있고, 위에는 솔이나 계란모양토기를 걸어두는 구멍이 있다. 쪽구들은 아궁이 부분이 부뚜막과 같지만, 뒤쪽으로 벽체를 따라 설치하여 연기가 지나가며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시설이다. 몽촌토성에서는 토기가 특히 많이 출토됐는데, 대개 4~5세기에 제작된 회색 연질 또는 회청색 경질 토기이다. 특히 몽촌토성이 만들어진 시기를 3세기까지 올려 추정할 수 있게 한 중국 서진(265~316) 시대의 동전무늬가 찍힌 자기 조각이 발견됐다. 도가니, 가위, 집게 등은 수공업 공방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방어 목적으로 지었던 몽촌토성에서는 백제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는 유물도 상당히 많다. 투겁창, 물미, 화살촉 등의 무기와 말재갈, 편자, 족쇄 등은 성을 지켰던 또는 성을 빼앗아 이 곳에 머물렀던 군인들의 발자취를 상상하게 한다. 특히, 소뿔로 만든 뼈갑옷이 인상적이다. 직사각형으로 갈아 만든 뼈조각의 길이는 대개 10cm, 너비 2~4cm 정도 된다. 475년 겨울, 한성은 고구려 3만 대군에 넘어갔다. 《삼국사기》 개로왕 조의 기록에 따르면 7일만에 북성이 함락되자 남성에 있던 개로왕이 밖으로 나와 도망가다 고구려군에게 붙잡혀 죽었다고 한다.⁸⁾ 온돌건물지 등 고구려 유물, 유적도 꽤 많이 나왔다. 상류층 귀족들이 사용하던 네 귀 달린 항아리, 동이 등 300여 점의 유물을 통해 고구려 지배층이 한동안 몽촌토성에 머물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7) 출처: 몽촌역사관 전시패널

8)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至是 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余萬年[再曾古余 皆複姓] 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王出逃 麗將桀婁等見王下馬拜 已向王面三唾之 乃數其罪 縛送於阿且城下戕之.”



그림 30 백제집자리전시관
(1988년 몽촌토성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집자리 4기. 이미지출처: 몽촌역사관 홈페이지)

⑪ 88올림픽드림과 몽촌토성 발굴 30년사⁹⁾

몽촌토성은 1910년대 일제의 문화재 조사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한 쇠락한 토성이었다. 1974년 잠실 지구 개발이 시작되고 1981년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뒤 방이동 일대가 올림픽경기장 설립부지로 정해지면서 몽촌토성은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1983년, 한가롭던 농촌마을 곶말(곶마을, ‘몽촌’의 우리말)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발굴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이주했다. 발굴은 1989년까지 6년 동안 서울대 박물관이 주도했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긴급발굴조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고급백제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자 역사·고고학계는 몽촌토성이 백제 왕성일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후 20여 년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최근에는 몽촌토성을 백제 초기 왕도인 한성(漢城)의 남성(南城)에 비정하는 학설이 역사학계 통설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그림 31 조선일보 1984년 8월 22일자 10면 “백제유적 몽촌토성 복원돼야”

9) 참고: 몽촌역사관 전시패널,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 “백제의 꿈, 왕도한산” 도록 (2014)



그림 32 1985년 9월 25일, 동아일보, 6면. “서울 몽촌토성 백제위례성의 주성”

1983년 1차 발굴조사에서 토성 보존을 위해 성벽과 외곽시설을 조사하여 토성의 규모와 해자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고, 이듬해 2차 조사에서는 성벽의 축조방법과 토단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양한 유물을 수습했다. 그 다음해에 이루어진 3차 조사에서 집자리, 저장구덩이 등의 생활유적과 금동제허리띠장식, 동전무늬도기 조각, 뼈갑옷 등 대표 유물이 나왔다. 1987년 성 내부 전면발굴 3개년 계획에 따라 구역별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연못지, 온돌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몽촌토성의 발굴은 서울의 1,500여 년 전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여전히 이 곳에 대한 조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13년 약 30여년 만에 재개된 발굴조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16년 11월, 고구려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와 성토(盛土)대지, 수혈유구(지면에서 곧게 내려 판 굴 모양의 터) 등이 확인됐다. 북문지 안쪽에서 삼국시대 포장도로 5기, 수혈유구 18기, 구상유구(고랑 모양의 터) 1기가 확인됐고, 북문지 밖에서는 삼국시대 도로 1기, 통일신라시대 도로와 수레바퀴, 소 발자국 흔적 등이 나왔다.¹⁰⁾

10) 2016. 11. 14. 파이낸셜 뉴스, “몽촌토성서 백제 전성기 대형 포장도로 확인”, <http://www.fnnews.com/news/201611140915256872>



그림 33 몽촌토성 도로의 흔적.

2016. 11. 14. 파이낸셜 뉴스, “몽촌토성서 백제 전성기 대형 포장도로 확인”

□ 한성백제의 왕릉

⑫ 백제의 고분박물관, 석촌동고분군

현재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석촌동 고분군’은 백제 한성시대 조성된 백제 왕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송파구 일대가 한성백제 시기의 도읍지였을 근거를 제시하는 유적지다.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290여 기 이상의 무덤들이 남아있었는데, 1970년대 개발 붐에 의해 무덤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왕의 무덤으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건축자재를 가져다 쓰기 위해 이 지대에서 많이 나는 돌을 많이 가져다 썼다.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장독대나 빨래 밑돌로도 쓰기도 했고, 6.25 전쟁 때에는 미군들이 한강 도강 작전을 위해 이 곳의 돌을 한강에 옮겨놓기도 했다. 지명 ‘석촌동(石村洞)’이라는 이름도 ‘돌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붙었다. 일제강점기 만든 지도에는 일본어로 돌마리(ドルマリ)라 되어있다. 예부터 석촌동은 ‘돌마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으며, 석촌동은 한자식 표기다.



흥미로운 사실은 석촌동 고분군에는 백제의 모든 고분양식이 다 모여 있다는 점이다. 흙무지무덤, 돌무지무덤, 독무덤 등 1970~80년대 문화재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즉, 한성백제 시기 무덤들이 이곳에서 한꺼번에 발견되면서, 이곳의 별칭이 이른바 ‘백제의 고분 박물관’이 되었다.

그림 34 석촌동고분군 조감도 (이미지출처: 문화재청)

이곳에서 나온 무덤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흙무덤, 돌무지무덤, 독무덤, 흙무덤)다. 특히 돌무지무덤은 사각형으로 다듬어진 할석을 여러 여러 개의 단을 쌓아 내부에는 돌과 진흙을 채워 완성했다. 이는 백제인들이 고구려에서 남하했다는 사실, 또 이에 따라 고구려문화를 백제인들이 자연스럽게 수용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석촌동 고분군에는 고구려식 돌무지무덤과 백제식 돌무지무덤(2호분) 모두 발견된다. 한편, 큰 항아리 2개를 이어 붙여 만든 이음식 독무덤과 하나의 항아리만 가지고 만든 단옹식 독무덤 등도 여기서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봉토 위에 자갈을 덮어 만든 흙무덤도 여러 기 나왔다.



그림 35 석촌동 백제 초기 돌무지무덤 발굴 장면
(이미지출처: 문화재청)



그림 36 석촌동고분군 토광묘 (이미지출처: 문화재청)

⑬ 한국의 피라미드, 돌무지무덤

석촌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여러 형태의 무덤 가운데 돌무지무덤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양식이다. 돌무지무덤은 땅 위에 돌을 쌓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을 묻은 양식이다. 돌을 무더기로 쌓은 것과 계단 모양으로 쌓은 것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는 후자다.

생긴 모습 때문에 ‘한국의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 이 양식은 납작하고 네모난 모양으로 다듬어진 제단이 3단으로 쌓여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석촌동 고분군에는 이러한 돌무지무덤이 수십 기 조사됐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는 3단 구조를 하고 있는데, 수년간의 발굴 조사를 통해 3단 피라미드 주변부에도 무덤을 조성한 흔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발굴조사 전에는 상부 구조가 대부분 파괴되어 원래 구조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중국의 집안시 통구 지역의 고구려 계단식 돌무지무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석촌동 고분군의 돌무지무덤들이 고구려 계통의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석촌동고분군의 돌무지무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3호분으로 맨 아래에 놓인 단의 길이가 가로, 세로 50m 가량 된다. 웅장한 규모로 인해 이 무덤이 13대 왕인 근초고왕의 무덤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현재 모습인 3단이 아닌 7단으로 여러 층에 걸쳐 조성되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또한 아래로는 지하에 여러 기의 단들이 옆으로 붙어있다는 점이 최근에 밝혀졌다.



그림 37 석촌동고분군 3호분 전경 (이미지출처: 문화재청)

그렇다면 돌무지무덤은 고구려식과 백제식이 어떻게 다를까? 세 개의 단으로 만들어진 계단모양이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내부에 쓰인 자재에 차이가 있다. 고구려식은 내부와 외부 모두 돌로 채웠다면, 백제식은 각 단 내부에 돌과 진흙으로 채워져 있다. 3호분의 경우는 전형적인 고구려식으로, 전체가 돌로 구성되었다. 토착 세력인 마한의 토광묘 전통과 고구려식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호분과 4호분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돌무지무덤은 한성백제를 건국한 세력이 고구려에서 왔음을 입증해주는 단서가 된다. 즉, 주몽의 아들 온조로 대표되는 고구려계 이주민이 백제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최고 지배세력으로 자리했음을 말해준다. 석촌동 일대에서 돌무지무덤이 지어진 시기는 3세기 중엽으로, 백제가 본격적인 고대국가로서 기틀을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가 건국 과정에서 마한으로부터 동북 백여리 땅을 빌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한강 유역에서 이미 백제 건국 전부터 토광묘를 사용하던 주민들이 있었고, 여기에 고구려에서 돌을 쌓아 만든 방식이 더해져 우리가 보는 돌무지무덤이 백제식으로 현지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⑭ 석촌동고분군 3호분의 주인은 누구?¹¹⁾

석촌동고분군 3호분은 규모나 무덤 속에서 출토된 유물로 봐서 백제 제13대왕 근초고왕(재위기간 346~375년)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성백제가 건국된 이래 가장 활발한 해상활동과 대내외적 확장이 가능했던 시기에 가능한 노동력을 동원하여 이를 조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11대 왕이었던 비류왕의 둘째아들 근초고왕은 백제 최전성기의 왕으로 왕권 강화와 영토 확장을 통해 강력한 고대국가의 기반을 확립했다.

근초고왕은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 출신 민족들로 구성된 한성백제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한 리더라는 평가를 받는다. 근초고왕이 재위한 4세기 중엽, 지금의 서울, 경기 지역에 터로 잡던 한성백제는 기름지고 넓은 평야와 서해안 및 한강 유역을 끼고 있어 물산이 풍족하고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다. 북쪽 만주의 부여에서 내려온 예족, 압록강유역의 고구려 출신 맥족, 대대로 한강 유역에서 살아온 한족 등 출신이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동해안의 옥저와 동예 지역에서 살다가 백제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대동강유역의 낙랑군과 황해도와 대방군에서 살다가 고구려에 자국 영토가 흡수되면서 남쪽으로 피난 온 중국계 백제인들, 백제의 고급문화와 선진기술을 배우려고 온 왜(倭)계 백제인도 있었다. 출신과 언어, 문화가 서로 다른 민족 70만명이 모여 살던 한성백제는 이른바 다문화(多文化) 사회였다. 풍납토성 안팎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낙랑, 고구려, 중국 남북조, 가야, 신라, 마한, 왜국 등 문화계통과 기술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는 근초고왕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야나 신라와의 우호를 위해서도 노력하여 삼한 출신 주민들을 끌어안고자 하였다. 낙랑과 대방 출신 사람들을 등용해 기술, 문예를 발전시키고자 하였고,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에도 이들을 적극 활용했다. 우리가 잘 아는 칠지도를 일본에게 보내고, 학자와 기술자들을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백제는 해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서해안 항로 개척을 통해 한반도 서북부, 요동 및 요서 지방과 교통하고, 서해안-남해안-일본열도를 잇는 해상교통로를 관리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과 주어진 조건을 가장 잘 살린 사람이 근초고왕이다. 이를 통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나라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백제 문화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었다.

11) 참고: 김기섭, 통합의 리더, 근초고왕, 동북아역사재단 NEWS vol.51, 2011. 2월



그림 38 KBS드라마 근초고왕
(방영일 2010년 11월 6일~2011년 5월 29일)
홍보 포스터

⑮ 방이동 고분군은 신라 유적이다?¹²⁾

송파구의 대표적 한성 백제 유적으로 석촌동 고분군과 방이동 고분군을 꼽는데, 그 중 방이동 고분군은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된다. 외관이 흙으로 쌓은 봉분 형태로 되어 있어, 과연 이 형태의 고분들이 백제 왕들이 묻힌 곳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곳의 무덤들은 백제의 돌무지무덤 형식에서 외부는 흙으로 봉분을 만들고 내부엔 돌곽을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돌방으로 되어 있어, 도굴당한 흔적들이 많았는데 이에 따라 부장품과 조성시기를 알기가 쉽지 않다. 1호분의 경우, 백제의 토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세 점 정도 나왔다. 다른 무덤에서는 신라 토기들이 출토되어 한성백제 대표 유적으로 꼽기에 약간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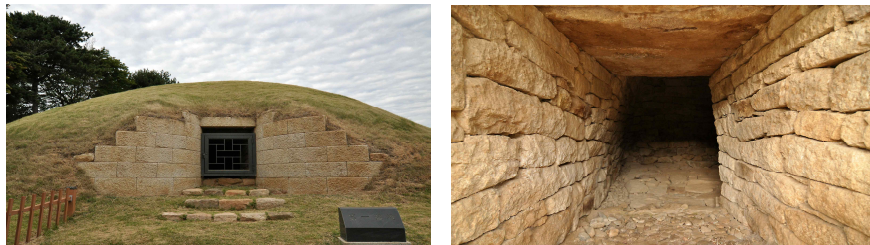


그림 39 방이동고분군 1호분(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 연구실
<http://fahl.hanya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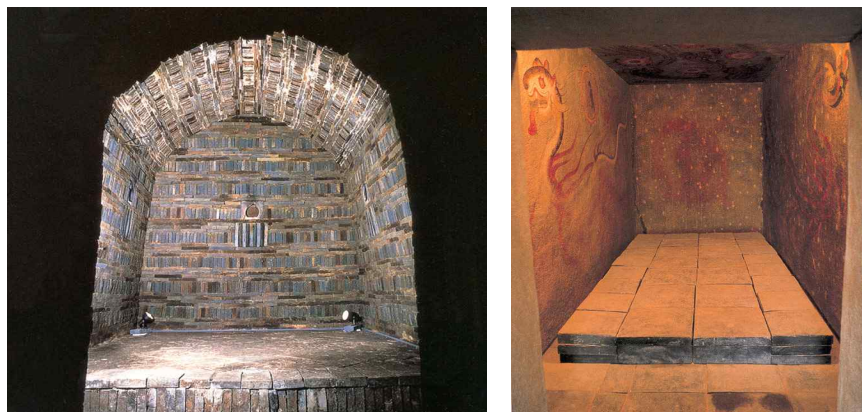


그림 40 공주 무령왕릉(좌), 부여 능산리 고분군 1호분(우) 내부
(이미지출처 : 문화재청)

이 지역 무덤들의 형태는 시기적으로 석촌동 고분군보다 늦다고 전제한다면, 한성백제 말기에 조성되기 시작한 돌방무덤과 이후 웅진시대, 사비시대 유적인 공주와 부여 일대의 돌방무덤들이 문화적으로 같은 계통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이동 고분군은 백제 지배층 무덤 축조 방식의 변화과정과 이 지역에서 신라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12) 참고: 성순택, 사라진 고대왕국, 500년 한성백제의 발자취를 따라서, 2015, 퍼플

□ 한성백제의 문화교류

백제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가야, 신라, 왜에도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섰다. 처음에는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여 중국과 교역하고, 4세기에 서해 직항로를 열고 요서지방과 산둥반도로 향하는 바닷길을 닦았다. 한강 유역을 잃은 5세기 후반 동진과의 교류를 위한 항로를 개척하였으며,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안전한 연안을 거쳐 일본 나라 지방에 이르게 된다.

⑩ 당대 최고의 트렌드 ‘메이드인차이나’ 수입의 흔적, 동전무늬

서울의 송파구 일대가 왕궁·왕성임을 알려주는 핵심적인 유물은 바로 기와류이다. 기와는 주로 관청·궁궐·사찰 등과 같이 권위 있는 곳에서만 쓰인다. 일반적으로 ‘백제’하면 관련 유물로 연꽃무늬 와당을 떠올린다. 와당은 기와의 막새나 내림새 끝에 둥글게 모양을 낸 것으로 막새라고도 불린다. 연꽃무늬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유행한 무늬인데,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인 한성백제 시기에는 풀무늬나 동전무늬, 짐승무늬 등 다양한 무늬를 새긴 와당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들 무늬 중에서 동전무늬는 중국 문화와의 교류의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동전무늬는 서해안 문화권을 주름잡던 한성백제 시대 당대 최고의 문화적 트렌드였던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되 가장 백제스러운 문양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동전무늬는 기와 말고도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토기에도 새겨져있다. 풍납토성 등에서 나온 토기들 중에는 중국제 토기들이 많다.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 중국 도자기를 많이 수입해서 사용했는데, 청자, 백자 등 많은 종류의 중국도자기들이 고분과 생활유적에서 나왔다. 중국의 흑갈유전문도기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전문’은 동전무늬를 뜻한다. 이 흑갈유전문도기는 한반도에 출토된 중국 도자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중국과 해상교역이 활발하던 백제시대의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그림 41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중국 흑갈유토기의 아랫부분 (사진출처 : 한성백제이야기자료집, 2008)

동전무늬 와당은 웅진사비시대와는 다른 한성백제의 가장 특징적인 유물이다. 동그란 앞면을 ‘十’자 모양의 선으로 나누고, 선의 끝부분을 +, T 또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네 부분으로 나뉜 각 면에는 ○ 등과 같은 무늬를 배치하기도 한 것이 많다.



그림 42 동전무늬 수막새편 (2006년 풍납토성 출토)

도대체 이러한 문양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고고학자들의 의견은 대략 구름무늬 변형설과 동전무늬설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구름무늬는 중국 한나라 때에 유행한 것으로, 남북조시대 이후에 연꽃무늬에게 자리를 내줄 때까지 와당 무늬의 주류를 이루던 것이다. 아마도 백제인들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를 변형한 것 같다고 학자들은 해석한다.

한편, 이 무늬가 동전과 관련 있는 물건을 모방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부터 동전무늬(전문)를 장식한 벽돌이 많이 쓰였고, 남중국의 육조시대(오, 동진, 송, 제, 양, 진)에는 동전무늬 도자기가 유행하였다. 동전무늬는 고대 중국인들이 돈을 숭배했던 풍조가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동전무늬에서 보이는 人 형태 무늬는 나뭇가지 모양을 나타낸 것인데, 나무에 돈이 주렁주렁 열린 모습처럼 표현한 것이다. 돈 외에도 동전무늬는 국가 군주의 권력, 부귀, 벽사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동전무늬가 장식된 와당은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수키와에 동전무늬가 찍힌 것은 몇 개가 알려져 있지만, 동전무늬 와당은 백제에만 있는 것이다.

⑦ 왜왕에게 하사한 백제 왕세자의 선물, 칠지도

백제 유물로 잘 알려진 칠지도는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선물한 쇠로 만든 칼이다. 칠지도의 총 길이는 74.9cm로 칼 몸의 길이는 65cm, 자루를 쏙는 부분은 10cm이다. 칠지도의 길이를 25cm 자로 재면 칼 전체의 길이는 3자, 칼 몸의 길이는 2자 6치, 자루가 박히는 부분은 4치로 딱 떨어진다. 이는 한성백제시대의 기준 척(尺)이 25cm임을 의미한다. 칠지도는 일본 나라현에 있는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되어 있다. 칼 몸 양쪽에 세 개씩 작은 가지 칼이 엇갈리게 뻗어 일곱 개의 칼날을 이루고 있어 칠지도(七支刀)라 불린다. 칠지도의 모양은 나뭇가지 형태로 수목(樹木) 숭배 사상과 연결된다. 신수(神樹)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백제의 전통적인 신앙을 형상화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7개의 가지는 도교의 의미와 연관이 있다. 칠(七)이라는 숫자는 도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칼의 제작에는 도가적 주술과 기원이 담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칼을 실제 전투용보다는 의식용으로 보고 있다.



그림 43 이소노카미 신궁 배전(拜殿)



그림 44 칠지도가 보관되었다는 이소노카미 신궁 금족지(禁足地)

칠지도, 누가 왜 만들었나?

칼 몸에는 앞면과 뒷면에 이 칼이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1873년 이소노카미 신궁의 대궁사 ‘간 마사토모’가 칼날의 명문을 발견하여 알려졌다. 전체 61자가 새겨져 있는데 표면에 미리 글자의 홈을 파두고 그 홈에 가는 금실을 끼워 넣어 글자를 완성한 것이다. 이를 상감(象嵌) 또는 입사(入絲)라고 말한다. 명문에 의하면 칠지도를 만든 주체는 백제 왕세자이며, 이름이 기(奇)로 표기되었고 왜왕 지(旨)는 후왕(侯王)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백제 왕세자가 왜왕과 동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백제왕은 제후 왕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의 대왕적 존재임을 과시한 것이다. 동시에 칠지도의 제작 주체를 왕세자로 함으로서 대외관계도 왕세자가 주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또한 왕세자의 위상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겨진 글자 중 조백련철(造百練鐵), 즉 ‘여러 번 두드린 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는 제작 방법이 적혀 있다.



그림 45 금속 상감기법을 통해 장식한 칼자루(이미지출처 : 투어코리아)

⑱ 해양강국 백제의 민고 보는 조선(造船)기술¹³⁾

한성백제의 최고 전성기였던 4세기 백제는 건국 초기부터 바다에서 특히 강한 나라였다. 중국과 일본의 길목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일 것이다. 북쪽은 고구려에 의해 막혀있었고, 당시 최고의 트렌드인 중국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서해를 이용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372년부터 621년까지 서해를 건너 중국까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은 배를 타고 다닐 때 백제 해군들의 감시와 보호를 받았다고 알려진 바 있다. 바다뿐만 아니라 한강, 임진강, 금강 등 긴 강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고구려나 신라보다 수상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아 배를 잘 만들고 잘 탔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과의 교류에서도 백제인들의 조선술이 큰 역할을 했다. 왕인박사는 285년 뗏목과 황포 돛으로 만든 배에 도자기와 철공 기술자를 태우고, 천자문, 논어를 갖고 건너갔다는 기록이 있다.¹⁴⁾ 왕인박사는 전남 영암에서 출발해 완도, 보길도, 고흥 앞바다를 지나 대마도 남쪽, 일본 규슈로 들어가 후쿠오카 남쪽 가라스 항으로 갔다. 백제의 조선술(造船術)은 일본에도 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650년 일본에서 만든 두 척의 배는 구다라선(百濟船)이라 불렀는데, 백제 배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성백제박물관에는 백제의 배를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백제 배의 밑부분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 만조 때 밑물을 타고 갯가로 들어와 간조인 썰물 때는 갯바닥에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통 한선(韓船)과 같은 밑바닥이 평평하고 넓적한 평저선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 밑에는 키가 설치되어 있어, 배의 뒤편 무니에 고정시켜 좌우로 회전하는 역할을 했다. 측면은 배 밑의 양쪽 옆 가장자리 턱을 따내고 턱 위에 널판을 대어 박아 겹쳐서 쌓아올렸다. 삼베로 만든 돛은 중앙에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돛의 가장 위쪽에 돛을 다는 상황과 가장 아래쪽에 돛을 연결하는 하활이 있다. 배 표면에는 옷칠이나 기름칠을 했는데, 바닷물이 닿는 부분에는 방수를 위해 동백기름에 흰가루를 발랐다. 닻 부분을 보면 수레 형태로 만들어 감아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주로 돌을 많이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배를 이동하게 하기 위한 노는 좌우 양쪽에 3개씩 있고,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저을 수 있도록 노의 끝을 비스듬히 회전시켜 물을 저었다.

13) 참고 : 한성백제박물관 도록 (2012)

14) 일본국지, 국통지. “百濟秀士王仁, 獻論語千文, 始傳儒教.”



그림 46 한성백제박물관에 복원된 백제의 배

□ 한성백제의 민속 문화

⑬ 토기로 살펴보는 백제인들의 식문화

최근 발굴중인 풍납토성에서는 많은 토기가 나오고 있는데, 흙으로 만든 토기는 썩지 않는 데다 불에도 강하기 때문에 이를 시대를 읽는 주요 유물로 본다. 백제는 토기를 만드는 기술자가 따로 있어서 일 년 내내 토기를 만들었다 한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중에서 건립연대를 살펴보기 위한 근거가 바로 토기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민무늬 토기인데, 그것보다 경도가 좀 더 높아진 경질무늬 토기들이 풍납토성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를 보아 아마도 풍납토성 쪽에서 먼저 토기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확장되며 몽촌토성 쪽에서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토기류가 이렇게 많이 나온 백제문화권 유적은 없다고 한다. 토성에서 발굴된 토기의 경우, 생활 유물일 가능성이 크고, 왕릉에서 발굴된 경우는 죽은 사람과 함께 무덤에 묻는 켜묻거리로 쓰이거나 제사에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인들은 의식용보다는 생활용 그릇을 더 많이 만들었다. 밥을 짓는 시루, 항아리, 음식을 보관하는 단지, 접시, 찻잔, 술잔 등이 대표적이다.

세발토기는 백제에서만 발견되는 그릇이어서, 백제의 영역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토기다. 이렇게 다리가 달린 그릇을 ‘굽다리 접시’라고 부르는데, 뚜껑이 있는 것도 있다. 백제인들은 화려하게 꾸민 토기보다는 쓰기 쉽게 실용적으로 만든 것들이 많다.



그림 47 세발 굽다리접시 (1997년 풍납토성 출토)



그림 48 세발 굽다리접시 (2005년 풍납토성 집자리에서 출토)

한성백제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주거지 안팎에서 큰 독이나 큰 항아리처럼 규모가 큰 토기들이 많이 출토된다. 풍납토성을 비롯해 포천 자작리, 파주 주월리 등에서 출토된 대형 항아리들은 대체로 주거지 안에 곡식을 저장하던 용도였을 것이다. 주거지 안에서 발견되는 50cm내외의 중형 항아리는 요즘의 쌀독과 같은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배부른 항아리 (풍납토성 경당지구 196호)

그렇다면 이렇게 발굴된 백제 토기들을 통해 백제인들의 어떤 식문화를 알 수 있을까? 풍납토성 경당지구 196호에서 나온 도기 항아리에는 복어 유체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맹독성 어류에 속하는 복어를 한성백제기 사람들이 먹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오늘날에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손질할 수 있다는 복어를 예전에는 어떻게 만들어 먹었을까. 풍납토성에서 나온 항아리 안의 복어 유체 형태를 봐서 염장 등을 해서 젓갈 형태로 먹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한다.



그림 50 풍납토성 경당지구 196호 유구의 유약바른 도기항아리에서 발견된 복어뼈

그런데, 이 도기 항아리에 복어 젓갈을 담가먹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극히 일부 왕족들의 식문화를 짐작케 할 뿐이다.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의 식기는 항아리보다는 시루고, 이 지역에서는 탄화된 쌀과 보리가 발굴된 것으로 보아 시루에 쌀과 같은 곡식을 찌서 먹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당지구에서는 노루, 돼지, 곰, 말, 소뿔이 출토됐으며, 미래마을 지구에서 복어, 민어, 도미 등 생선뼈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흔적들을 통해 한성백제를 살았던 사람들의 밥상을 상상해볼 수 있다.



그림 51 멧돼지 치아 (풍납토성 경당지구 9호 출토)

중국 기록인 《수서(隋書)》의 백제전을 보면 백제인들은 화식(火食)을 즐기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다.¹⁵⁾ 발효음식과 회를 먹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록은 건국 초기부터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백제의 식문화를 짐작하게 해준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에서 부식으로 먹는 음식은 김치류와 육회, 생선회 등이 있다. 한성백제의 영토는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서해안 일대 염전이 많아 소금 생산량이 많았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 나는 생선이 경기만이 나 한강수로 또는 김포 일대를 거쳐 풍납토성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일대에서 발굴되는 거대한 향아리나 단지는 저장음식에 속하는 김치류와 소금에 날 생선을 절여 만든 젓갈류를 담아 보관하는 데 이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당시 중국문화의 하나인 차(茶) 문화를 즐긴 백제인의 모습 또한 이 지역에서 출토된 다기(茶器)에서 상상해볼 수 있다. 풍납토성을 비롯한 백제 주요유적에서 돌절구, 청자 사발, 닭머리 모양 향아리 등이 나오는데, 이는 차를 내려 마시는데 이용될 도구들이다. 중국 육조 시대의 유물이기도 한 이들 유물은 풍납토성 외에도 천안이나 공주 등 백제 지방에서도 발굴됐다. 이를 통해 한성백제 시대 차 문화가 넓은 지역에 퍼져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인들이 즐겨 마신 차를 내리는 방법은 지금과는 다른 것 같다. 백제 시대에는 차를 빵아서 죽 형태로 만든 다음 떡 형태로 만들어 말렸다. 이를 볶거나 돌절구에 넣어 찼을 후 가루를 만들어 주전자같이 생긴 닭머리모양 향아리에 넣고 뜨거운 물에 내려 마셨다.



그림 52 돌절구(1997년 풍납토성 출토)

15) 수서, 백제. “有五穀，牛，猪，雞，多不火食.”

㉔ 한성백제, 진짜 바둑 때문에 망했나?

고구려에서 온 간첩승 도림의 건의로 개로왕 때 대규모 토목공사를 여러 번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결과 노동력과 국고가 비어가면서 한성백제는 몰락했다는 내용이 골자인 백제 개로왕의 바둑사랑은 잘 알려져 있다. 도림스님은 국수(國手) 수준의 바둑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바둑을 좋아하는 개로왕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당시 고구려왕이었던 장수왕은 백제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민심을 잃게 하는 전략을 세운다. 이런 가운데 도림은 바둑에 미친 개로왕을 꺾어 백제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고구려에서 내려왔다. 국사도 내팽개치고 도림과 바둑에 빠진 개로왕은 자연스럽게 도림에 대해 인간적인 신뢰를 쌓게 된다.¹⁶⁾ 개로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도림은 개로왕에게 백제에 궁궐과 성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다. 개로왕의 강력한 왕권으로 토목공사는 곧 착수되었다. 그런데 이 토목공사 결과 나라의 곳간은 점차 비워지고,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 또한 어려움에 처하여 백제는 내부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장수왕은 475년 백제 정벌에 나섰다. 백제가 수도를 지금의 공주로 옮겨 웅진시대를 맞게 된, 즉 한성백제의 종말을 고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개로왕의 바둑사랑 때문인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한 나라의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해 외교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바둑이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수서(隋書)》를 보면, ‘백제의 풍속은 말 타기와 활쏘기, 경서(經書)와 역사서를 읽는 것을 숭상한다. 그리고 바둑 두는 것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¹⁷⁾ 바둑에 의해 한성백제의 운명이 변한 개로왕의 사례처럼 바둑 등 오락을 즐겼을 만큼 백제를 문화대국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개로왕뿐만 아니라 백제의 귀족들은 중국의 고전과 역사책 읽는 것을 즐긴 한편, 바둑과 같은 다양한 놀이문화를 즐겼다. 각종 기록에서도 백제인이 오락을 즐긴다고 전한다. 《수서(隋書)》를 계속 보면 백제인은 바둑뿐만 아니라, 투호(投壺), 저포(樗蒲), 악삭(握槊), 농주(弄珠)와 같은 놀이를 즐기며, 고각(鼓角), 공후(箜篌), 쟁(箏), 우(竽), 지(箴), 적(笛) 등의 음악도 즐긴다고 전해진다.¹⁸⁾ 특히 바둑은 문(文)의 즐거움과 무(武)의 쾌감을 모두 갖춘 놀이다.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략을 바둑판에서 펼치기 때문에 두뇌게임을 해야 하고, 정정당당히 겨루어 반드시 승부를 봐야 하는 스포츠 정신을 담고 있다.

일본 정창원에는 이를 보여주는 백제 바둑판이 있다. 정창원은 일본 천황의 보물창고인데, 대개 7세기 전후한 시기에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문물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 바둑판은 의자왕이 일본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장치가 바둑판 안에 기계

16)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時 百濟王近蓋婁好博奕 道琳詣王門 告曰 臣少而學碁 頗入妙 頗有聞於左右 王召入對碁 果國手也 遂尊之 爲上客 甚親昵之 恨相見之晚.”

17) 수서, 동이전. “俗尚騎射, 讀書史, 能吏事 ... (중략) ... 有鼓角、箜篌、箏、竽、箴、笛之樂, 投壺、圍棋、樗蒲、握槊、弄珠之戲.”

18) 수서, 동이전. “有鼓角、箜篌、箏、竽、箴、笛之樂, 投壺、圍棋、樗蒲、握槊、弄珠之戲.”

장치가 있다. 바둑 게임을 할 때, 잡은 돌을 넣는 서랍함이 있는데, 한 곳을 열면 상대방 함도 같이 열리도록 되어있다. 닫으면 같이 닫히기도 한다. 이는 게임의 재미를 높이는 데, 누가 잡은 돌을 얼마나 먹었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한 것이다.

이 바둑판 이야기를 좀 해보자. 현재 한성백제박물관에는 일본 정창원의 바둑판, 바둑알, 바둑알통을 복제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바둑판은 자주빛 자단목에 선과 문양을 상아와 각종 안료로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바둑판을 담는 상자는 바깥면에 상아 등으로 거북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열하고 무늬 안에 금박, 은박, 검은색 당화문(唐花紋)을 그려 넣은 뒤 투명한 각질 판자를 끼워놓았다. 바둑돌은 화려한 바둑판과 함에 걸맞도록 상아 표면을 염색하여 문양을 새기고 채색했다. 양면에 화식조(花喰鳥) 무늬를 새겼으며, 붉은 색과 감색의 상아에 각각 다른 새 모양을 새겨 넣었다. 붉은 색과 감색 바둑알은 한 벌로 보인다. 이밖에 흰 바둑돌은 석영, 검은 바둑돌은 사문암으로 만들었다. 바둑돌을 담아 두는 용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뚜껑 윗면에 꽃나무 아래에서 꽃 가지를 물고 있는 긴꼬리새를 장식하고 옆면에는 염주무늬와 네 장의 꽃잎무늬를 늘어놓았다. 또 하나는 뚜껑 윗면의 은판무늬에서 중앙에 코끼리를 장식하고 아래쪽 암석에 꽃까지가 둥글게 자란 모양을 표현하였다. 단순한 놀이도구라기 보다는 격조높은 문화의식과 공예기술을 보여주는 유물이라 하겠다.



그림 53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복원한 백제 바둑판

한성백제박물관에 복원된 이 백제 바둑 유물 세 점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기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작업했다. 이를 통해 일본에 있는 유물과 가장 유사하게 제작하고자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9호 화각장 기능보유자인 이재만 선생과 유물 복원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일본 정창원은 유물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어서, 촬영이나 직접관찰이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정확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된 자료 없이 주변 자료만 가지고 복원 작업을 해야 했다. 또한, 제작 당시, 즉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의 재료를 똑같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오늘날 구할 수 있는 재료 가운데 가장 유사한 재질을 가진 재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림 54 옆판 마름모꼴 문양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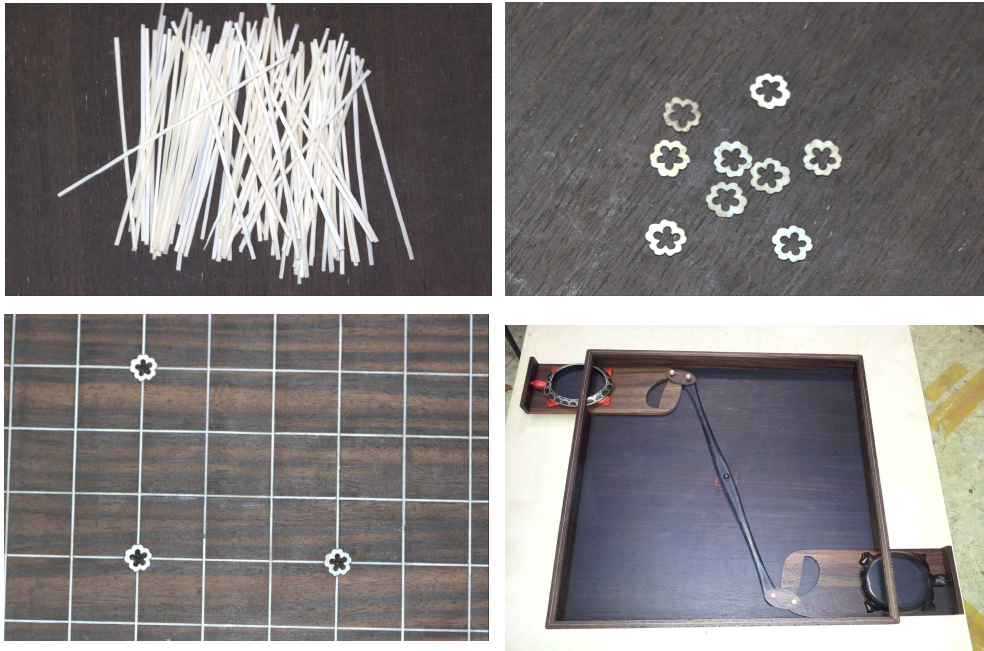


그림 55 바둑판 복원 과정 (상아재단 줄 및 화점, 서랍 특수장치 제작)

II.3. 대표이야기 20선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요

678년의 백제역사 중 49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성백제’지만, 백제의 후기인 공주와 부여의 백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자료가 많지 않아 한성백제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등 한성백제의 Big3이라 할 세 곳에서 쏟아지는 발굴성과는 한성백제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매우 크고 높다. 여기서는 수도 서울에 자리잡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성백제의 도성과 석촌동고분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 데 모아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요약정리함으로써, 한성백제 역사문화권에 자리한 석촌동고분군 일대 사회적 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하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시민단체들이 먼저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근거자료가 희박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반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학자들의 의견도 같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용역의 주 목적은 이야기 개발이 아니라 한성백제의 콘텐츠 중 대표적인 것들 몇가지를 상품개발에 활용하는 데 있으나, 한성백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가 낮아 한성백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홍보하기 위한 기초로 기존의 연구용역이나 자료집, 학술논문 등에서 기본적인 꼭지들을 뽑아 정리해본 것이다.

하지만 정리과정에서 이야기들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토와 혹시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 역사적 사실의 오류가 있거나 중요한 주제가 빠진 것은 있는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자 하였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의 발굴에 직접 참여하시거나 이 분야를 연구하셨던 세 분의 역사·고고학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계상품 기획 및 전략 개발을 위하여, 역사전문가 세 분을 비롯하여 한 분의 상품디자인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하였다. 이는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활용될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가 최대한 왜곡되게 반영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였으며, 한성백제의 상징이 될만한 요소를 찾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2) 자문내용

① 신희권(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 자문일자: 2017년 5월 25일 (목)
 - 장소: 서울시립대 교수연구실 방문
 - 이야기 소재 자문 및 검토 사항
- 백제 건국사 및 국호 관련 내용
- 고구려의 비류와 온조가 한반도로 남하하여 인천을 거쳐 서울 송파구 일대에 백제를 세운 이야기 등을 비롯해, 원래는 열 명의 신하를 데려와 국호를 ‘십제’라고 지었다가 나중에 ‘백제’라고 부른 이야기를 추가하면 좋을 듯함.
- 풍납토성 경당지구 ‘굴삭기 사건’
- 풍납토성이 지금처럼 보존될 수 있었던 계기는 2000년 5월 경당지구 조합장이 불도저로 발굴현장을 밀어버린 사건 이후임. 신문 검색하면 나올만한 이야기인데, 당시 아파트 재건축이 미뤄지고 안될 것 같자 주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유적을 파괴한 사건임. 이 사건이 국무회의에 보고돼서 김대중대통령이 돈이 얼마가 들든 보존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음. 이에 문화부장관이 5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이런저런 행정절차를 수행했다가 차기 정부 하에서 지속되지 못함. 그러나 이후로 풍납토성의 보존방침이 세워져 지상 15미터, 지하 2미터 넘지 않게 건물을 세워야 했음. 유적 훼손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유적이었으며, 당시 문화재 관련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했었다는 점에서 중요함.
- 몽촌토성 최근 재발굴 관련 내용
- 80년대에 이루어진 몽촌토성의 발굴은 트렌치발굴로서 테스트 수준의 발굴이었음. 그것을 복토해서 올림픽공원을 만들었다가 최근 한성백제박물관 만들어지고 2013년 이후로 북문지 주변에 재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크니 이에 대한 내용을 넣어줄 필요 있음.
- 참고자료 추천
- 한성백제박물관 발간 요약보고서, 현장설명 자료집

● 상품개발 관련 의견

- 동전무늬, 칠지도, 돌무지무덤 등 전반적인 소재 선정 적절함.
- 돌마리 귀걸이 등이 디자인 면에서 좋아 보임. 케이크, 떡 같은 디저트도 아이디어 좋은 듯함.
- 칠지도 관련: 현재 한성백제박물관 로고이며 이미 많이 사용되는 주제임. 주로 모양에 대해서만 주목했는데, 명문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음. 글씨가 상감기법으로 새겨져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은 좋은 접근으로 생각됨.
- 돌무지무덤 형태를 모티브로 살린 액세서리나 디저트 관련 상품개발의 경우, 백제 모양 토기(굽다리접시 등)를 이용해 돌마리 모양의 디저트를 차(茶)와 함께 제안하여 백제의 독특한 차문화를 강조하면 좋을 것 같음.

② 권오영(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자문일자: 2017년 6월 1일 (목)
- 장소: 서울대 방문

● 이야기 소재 선정 관련

- 연대, 지명 등 역사적 사실관계 틀린 부분 수정 요망
- 풍납토성의 목적과 해자 관련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방어시설은 목책이 아니라 환호임.
- 최근 발굴 및 연구 성과 반영
한성백제박물관 도록 등 최근 연구 성과 반영하여 수정 요망. 예를 들어 한강 옆에 자리한 왕성 관련 내용에서 최근 고려대 이홍종 교수는 풍납토성이 지금처럼 얇은 강둑 옆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고대 서울 한강 주변은 지금보다 높고 안정적인 지대였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니 이러한 점 참고하기 바람. 몽촌토성 해자 발굴 부분에 대해서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최근 발굴보고서를 참고할 것.
- 백제 식문화 관련
복어뼈 이야기는 극히 일부 왕족들의 식습관에 대한 내용임.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는 노루, 돼지, 곰, 말, 소뼈 등이 다 출토됐고, 미래마을지구에서는 복어, 민어, 도미뼈 등이 출토됐는데, 이는 백제인들의 식문화를 미루어볼 수 있는 유물임.
- 백제 바둑판 이야기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약 2억여 원 들여 일본 정창원의 유물을 복제했음. 그 이야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면 좋을 듯함.

● 상품개발 관련

○ 돌무지무덤

현재 3단 피라미드 구조로 된 3호분은 실제 7단으로 추정되고 있음. 석촌동고분군 아래에도 수십 기의 무덤이 발굴되고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할 것.

○ 동전무늬

천지인(天地人) 형상화 한다는 의미는 잘못 알려진 내용임. 동전무늬는 동전이 주렁주렁 걸린 나무 무늬를 형상화함. 동전무늬 와당은 정말 백제스러운 성격을 잘 나타내는 유물인 것 같음.

○ 칠지도

명문 해석 내용 수정안 제공하니 참고할 것. 상감기법은 부각시키기 좋은 소재임. 편지 봉투 뜯는 칼 등으로 상품 개발하면 좋을 듯함. 미아보호용 칠지도와 여성용 칠지도 편도 재미있을 듯.

○ 백제 세발토기(굽다리접시)는 가장 백제스러운 유물이므로 개발하기 좋은 소재임. 작게 만들면 화장품, 반찬종지 등으로 활용된다면 좋을 것임.

○ 타날문은 제조과정에서 나온 문양으로 백제양식으로 강조하기엔 적합지 않을 듯.

○ 짐승문 등은 오늘날 부적 같은 것으로 상품화 하면 좋을 듯함.

③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 전시기획과장)

- 자문일자: 2017년 6월 1일 (목)
- 장소: 한성백제박물관 방문
- 이야기 소재 선정 관련
 - 동명사당 이야기 등 너무 단정적인 어투로 쓰인 내용 지양할 것.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 제사관련 유적이 나온 것은 맞지만, 그것이 동명사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백제의 배’ 관련한 내용도 검증된 것은 아니므로 한성백제박물관에 소개된 백제의 배 전시패널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정연구자의 내용으로 편중된 듯 하여 연구성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보완할 것.
 - 이야기 전개에서 감정적·주관적 표현 등은 조심해야 함. 예를 들어, 석촌동고분군의 발굴 현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정리하였으면 좋겠음.
 - 칠지도를 단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오히려 주조설이 우세하므로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 추가 테마 제안 : 한성백제 관련 역사인물(온조왕, 개로왕, 특히 근초고왕), 한성백제박물관 백제 바둑판 복원기 등을 추가로 다루면 좋을 듯함.
 - 관련 자료 제공 : 몽촌토성 발굴 특별전, 한성백제박물관 전시패널
- 상품개발 관련
 - 돌무지무덤 : 한성백제 향토색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소재로서 흥미롭고 재미있음. 그런데 3호분의 경우 3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비율로 보면 더 올라가는데 한성백제박물관은 7층까지 올렸음. 김밥이나 초콜릿 같은 아이디어 좋은데 그 안에다 뭘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음.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소재임.
 - 와당 빵 : 공주대학교에서 와당 빵 이미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상품개발 시 확인할 것.
 - 동전문 : 와당문양중 초화문은 일전에 중국답사때 와당이 아닌 다른 것에서 본 것 같다. 동전문 같은 와당문양은 못 보았는데, 국내에 와당 자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적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음.
 - 칠지도 : 칼에 명문을 새겼다는 점에 착안해 국태민안을 비는 것 같은 부적처럼 그림에다 명문을 새겨 상품화 하는 것도 좋을 듯함.
 - 바둑판 : 바둑판 때문에 백제가 망했다는 의견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당시상황에 맞는 고차원적인 놀이문화로 보는 것이 좋겠음.

④ 한재준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 자문일자: 2017.06.02.
- 장소: 서울 금호동 소재 자문위원 자택 주변 카페
- 상품개발 관련

○ 상품 개발 이전에 면밀한 브랜딩 계획과 전략이 필요함.

○ 브랜딩 전략 수립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겠음.

- 지역 재생 사업의 일환인가 VS 역사 문화 브랜딩 사업인가
-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업인가 VS 다양한 문화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성격의 기반사업인가
- 단편적인 일회성 사업인가 VS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사업인가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동전문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상품 개발은 가능하다고 생각함.

-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제작도 가능할 것 같음.
- 역사적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스토리텔링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 부자 또는 천지인 삼재사상 가운데 어떤 쪽에 포지셔닝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좋겠음.
- ‘부자’ 이야기를 강조하면 화제성이나 일회적인 성과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반감을 살 수도 있음.
- 상품 개발인가 또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지원 성격의 기반사업인가를 확실하게 해야 함.

○ 원소스멀티유즈 전략이 답

- 정부지원 사업이라면, 원형 콘텐츠를 제대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정도가 적절함.
- 문화원형의 가치를 근거 있게 밝히고, 누구나 수월하게 접근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 사회적경제센터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부분적인 접근법이 적절해 보임.
 - 적은 예산 투입의 예비 개발 사업 또는 제품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과 소량 판매 사업 등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와 대중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고 기본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음.
 - 단, 이런 사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경험이 많은 기존 전문업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해야 함.
 - 소수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자립할 수 있는)으로 정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역사문화 콘텐츠 문화상품은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국제적인 수준 유지가 필요함.
- 적정예산의 투입, 적절한 추진 절차와 방법으로 적정성과를 끌어내는 사업이 되길 바람.

3) 자문결과 반영

- 역사적 사실관계, 연대, 지명, 인명 등 오류에 대해 지적된 내용 반영
- 최신 연구성과 및 참고자료 반영
- 추가 이야기 소재 개발
 - 온조에 의한 백제 건국과 국호 관련
 - 풍납토성 경당지구 ‘굴삭기 사건’
 - 도로 흔적 등 몽촌토성 최근 발굴 관련 내용
 - 한성백제박물관 바둑판 복원 이야기
- 상품개발 관련
 - 자문위원 공통의견 : 돌무지무덤에서 착안한 돌마리 김밥, 돌마리 떡 등은 가장 한성백제스러운 아이디어 같으니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함.
 - 와당 빵이나 동전무늬 등 기존에 개발된 비슷한 상품이 있으니, 겹치지 않게 개발될 것을 조언함.
 - 칠지도 관련해서는 이미 한성백제박물관 등이 공식로고로 사용하거나 박물관 숏에서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
 - 추가 상품개발 제안 : 백제 세발토기(굽다리접시)는 한성백제스러운 소재로, 이를 활용한 화장품, 반찬종지 등 그릇 상품 개발하면 좋을 듯함.
 - 지속적인 상품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브랜딩 계획을 수립하고,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타겟팅 설정을 적절히 해야 함.

III. 석촌동고분군 연계 상품 기획

III.1. 이야기 연계한 브랜딩 전략 개발

1)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반을 둔 이야기 개발방향 설정

○ 백제 건국 초기인 한성백제의 역사성 반영

석촌동고분군 일대에는 한성백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석촌동 고분군·풍납토성·몽촌토성 등 백제 초기 유적과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유적의 경우는 방대한 규모의 성곽과 건물터, 최고지배계층의 고분을 갖추고 있으며, 유물 역시 최고지배계층이 향유하였을 법한 금제 장신구는 물론, 복어 등의 귀한 음식을 먹었던 흔적, 중국에서 건너온 물건 등 한성백제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 과거 하남 위례성 일대 출토 유물 관련 이야기 등 장소성 반영

서울 송파구 일대에는 유물과 유적 분포 등을 보아 한성 백제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한강이 범람하자 하남위례성으로 추측되는 대규모의 풍납토성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목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석촌동고분군과 몽촌토성 등으로 한성 백제의 다양한 문화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송파구 일대는 사라진 고대왕국, 한국의 폼페이라 불릴 정도이다.

이처럼 송파구 일대에 한성백제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어있는 만큼, 해당 공간에 있는 한성백제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웅진(공주)과 사비(부여) 시대에도 볼 수 있는 백제 문화는 제외하여, 과거 온조왕이 도읍을 세우고 고이왕 시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한 뒤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한, 하남 위례성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한성백제의 역사문화요소를 부각하고자 한다.

이처럼 기획의 방향은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반을 두지만,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그들의 관광목적에 맞게 품목을 선정할 것이다. 석촌동 고분군 일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품목, 흥미를 끌게 만들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 및 기획하고자 한다.

2) 한성백제 대표이야기 20선 선정

앞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대표이야기의 20선 주제는 다음과 같다.

분류	순번	주제
한성 백제의 도시 계획	1	고구려의 온조 왕자, 한성에 백제를 세우다
	2	기록에 나온 하남 위례성은 어디일까?
	3	한강의 옛 모습과 백제인들의 치수(治水) 기술
	4	왕성과 왕릉으로 조성되는 고대 도시디자인
한성 백제의 왕성	5	1,500년을 버틸만큼 튼튼한 토성을 쌓은 백제인들
	6	풍납토성의 해자, 드디어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지다
	7	백제에도 ‘종묘’가 있을까?
	8	풍납토성 발굴 이야기
	9	관리당국의 문화재 보존 지침을 만든 풍납토성 ‘굴삭기 사건’
	10	자연지형 그대로 지은 왕성, 몽촌토성
	11	88올림픽드림과 몽촌토성 발굴 30년사
한성 백제의 왕릉	12	백제의 고분박물관, 석촌동고분군
	13	한국의 피라미드, 돌무지무덤
	14	석촌동고분군 3호분의 주인은 누구?
한성 백제의 문화교류	15	방이동 고분군은 신라 유적이다?
	16	당대 최고의 트렌드 ‘메이드인차이나’ 수입의 흔적, 동전무늬
	17	왜왕에게 하사한 백제 왕세자의 선물, 칠지도
한성 백제의 민속 문화	18	해양강국 백제의 민고 보는 조선기술
	19	토기로 살펴보는 백제인들의 식문화
	20	한성백제, 진짜 바둑 때문에 망했나?

표 2 한성백제 대표 이야기 20선

3) 지역이야기에 기반을 둔 한성백제 대표 유물 3종 도출

○ 백제의 와당 문양

문양은 미적으로 아름답도록 꾸며줄 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에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문양은 이러한 단순성과 복잡성 때문에 각 나라나 민족별로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표현하게 된다. 백제의 문양도 다르지 않은데, 중국의 기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백제의 특징인 ‘활발한 대외교류’, ‘상업의 발달’, ‘오락과 점술·음양오행 등의 발달’ 등의 모습도 문양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전무늬는 대외교류와 상업활동이 활발한 발달한 백제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문양이다. 상업에 능수능란한 백제인들이 동전무늬를 넣어 장사가 잘 되기를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의 대외교류에 대한 증거는 많이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백제 근초고왕이 집권한 372년(근초고왕 27) 때부터 대외교류에 대한 기록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중국이 위진남북조시대(221~589)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를 활발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중국 서진시대(265~317)의 유물들이 한성백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교류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는 한성백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양이기도 하다. 동전무늬 와당 등, 동전무늬가 들어간 유물은 한성백제 유적에서만 다량 출토되고 있다.



그림 56 백제의 와당 (동전무늬 - 연화무늬 - 풀 무늬 - 짐승무늬)

○ 칠지도

칠지도는 한성백제를 대표하는 신검(神劍)이자 대외교류의 상징이다.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 등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백제 근초고왕 대에 제작하여 교류를 한 것만큼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칠지도는 금 상감기법으로 문자를 수놓았으며 일곱 가지의 칼날을 만들어낸 이색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백제의 상당한 제련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기술로도 재현하기가 까다로운 수준이라 한다.



신 2744

그림 57 백제 칠지도 모조품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58 칠지도 상감기법

○ 돌무지무덤

석촌동 고분군은 사각형을 피라미드식으로 여러겹 쌓은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백제를 건국한 온조와 비류가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고구려 계통의 무덤 양식을 차용하였지만, 점차 백제 고유의 양식으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이 석촌동 고분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송파구 일대 한성기 백제유적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활용 가능하다.



그림 59 석촌동고분군 돌무지무덤

III.2. 사회적경제 활용 가능한 상품 기획

1) 대표유물 하나 : 백제의 동전무늬 와당(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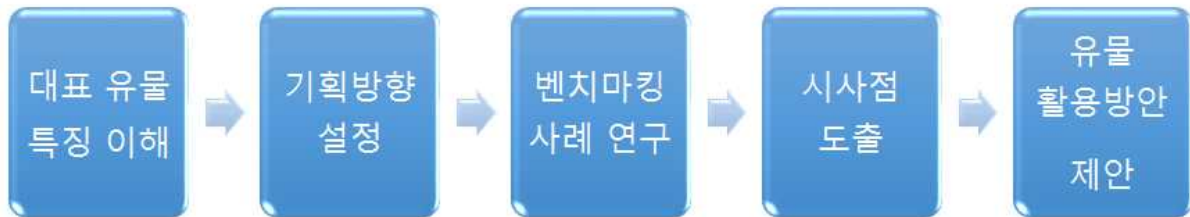


그림 60 동전무늬 와당을 활용한 상품 기획 과정

○ 동전무늬 와당의 특징

- 풍납토성에서 한성기 문화 복원에 매우 중요한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한 곳에서 5천점 이상 출토될 정도로 질적·양적 성과가 나타났다. 발굴 주요유물은 기와를 비롯한 초석, 전돌, 토관,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 등이 있으며, 기와로는 수막새, 수기와, 암기와가 출토되었으나 암막새는 출토되지 않았다. 또한 초석의 모양은 각진 원형(8각·10각), 각이 없는 타원형이 있다.
- 여기서 문화적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와당(瓦當:막새), 그중 수막새가 출토되었다. 와당에 새겨진 무늬는 세련되면서도 독특하여 백제 특유의 미술사적 가치를 지닌다.
- 와당 문양은 풀무늬, 짐승무늬, 동전무늬, 연화무늬 등이며, 대표적으로는 연화문이 부각된다. 암/수기와 문양은 선문, 격자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백제식 연화문은 세련미가 돋보이는 백제 양식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백제 문양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전달하여 활용가치가 높다.
- 그러나 수막새에서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동전문’이다. 동전문은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출국 중국에는 없고, 수입국인 백제에 있는 형태가 되었다.
- 백제는 중국 양나라, 일본 등 활발한 대외무역을 하였다. 사업에 밝았던 백제인들은 지붕기와에 동전문양을 넣고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동전무늬는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였다.

○ 동전무늬 수막새의 문양



○ 백제의 다른 수막새 무늬

		
연화문	풀꽃문	짐승얼굴문

백제의 다른 수막새 무늬들도 예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나고, 백제의 요소를 잘 담고 있다. 그러나 백제 고유의 것임을 부각하기에 어려운 요소를 가진.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에서도 그 양식이 계속 성행하고 있거나, 고구려 신라에서도 비슷한 양식들이 발견되고 있는 점들이 그것이다. 연화문 양식으로 예를 들면, 연화문 양식은 불교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백제 연화문은 꽃잎의 모양이 하트모양(♡)의 형태를 갖는 등의¹⁹⁾ 곡선미를 간직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신라와 고구려의 연화문과는 다른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특징으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누군가의 설명이 부연되지 않으면 모두가 비슷한 연화문으로

19) 사비 후기의 연화문 수막새 등의 특징. 부여 용정리 발굴 연화문 수막새 등이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인식할 뿐, 이를 자세히 알기 어렵다.

짐승얼굴무늬 등 백제 출토 문양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제 고유의 미술사적 가치를 지닌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일반인이 해당 문양을 보고 백제라는 이미지를 연상케 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경주 영묘사지에서 출토된 얼굴무늬 수막새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특징적인 모습과 함께 ‘신라의 미소’를 바로 연상케 하여, ‘얼굴무늬=신라’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이미지메이킹이 확실히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전무늬 수막새가 거기에 담긴 모습이 ‘대외교류가 활발하였던 백제’를 바로 연상케 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그러나 백제 연화문 등이 백제적인 요소를 갖음에는 분명하므로, 차후에 어떻게 연계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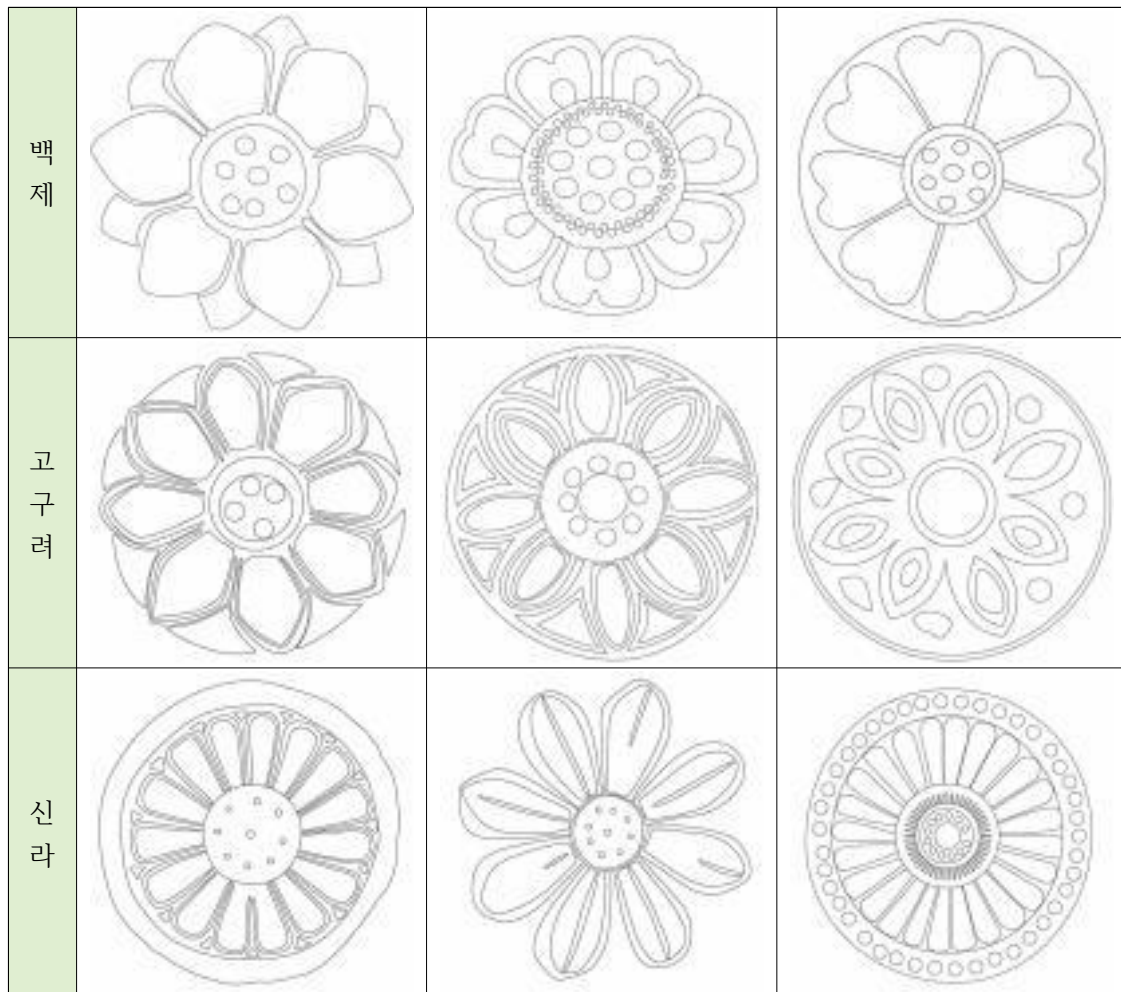


표 3 삼국의 연화문(도면) 비교

○ 기획방향 설정

상품 기획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 백제의 와당은 공주와 부여에서 출토된 와당이 대부분이며, 연꽃무늬가 대부분이지만 석촌동 일대에서 출토된 와당은 문양과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부터 동전무늬 벽돌이 많이 쓰였고, 남중국의 육조시대(오, 동진, 송, 제, 양, 진)에는 동전무늬 도자기가 유행하였다. 동전무늬는 권력, 부귀, 벽사의 의미를 지닌다.
- 동전무늬가 장식된 와당은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동전무늬 와당은 백제에만 있다.
- 2008년에는 풍납토성에서 짐승얼굴무늬(수면문) 와당과 연꽃무늬(연화문) 와당도 발견되었다. 짐승얼굴무늬는 중국 동진, 연꽃무늬는 남북조시대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다르다. 백제가 당시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 발전시킨 것이다.
- 한성백제기의 와당은 단순하면서도 모던한 무늬를 보여 백제인의 미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 백제의 와당 중 수막새의 동전무늬를 모티브로 해서 상품화 기획한다.
- 동전무늬의 디자인은 원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패턴화하는 것을 1차과제로 한다.
- 상품화 방향은 첫째로 포장지와 종이백, 도로면 바닥 등 문양을 반복 확대한 패턴화, 둘째로 금속공예(목걸이, 귀걸이, 패넌트, 기념주화 등)의 문양, 셋째로 쿠키, 빵, 와플 등의 제과제빵에 동전문양을 활용하여 실용화 할 수 있다.

○ 벤치마킹 사례 연구

경주의 ‘천년미소 경주브랜드’는 역사성에 기반을 둔 콘텐츠와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장소 또는 상품 등에 석촌동고분군의 고유 콘텐츠를 접목하여,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로 승화한다.

▪ 경주 얼굴무늬수막새를 활용 사례

경주 영묘사지에서 출토된 ‘사람 얼굴무늬 수막새’는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모습에 눈·코·입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신라의 미소’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 이에 수막새의 얼굴모양을 활용한 빵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경주시 시내버스 등에서는 신라의 역사성과 수막새의 상징성을 접목하여 ‘천년미소’라는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62 새천년미소버스
브랜드(http://blog.naver.com/shchoi_0313/220763714894)



그림 63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그림 64
신라미소빵(<http://blog.naver.com/nanoajo>)

▪ ‘천년미소 경주’ 브랜드 개발과 얼굴무늬수막새 활용의 성공요인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 약 천년간 존속하였던 고대 왕조이다. 그리고 신라를 천년동안 존속하게 하였던 중심은 바로 경주였다. 경주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신라 관련 유물과 유적이 특히 많다. 첨성대·대릉원 등의 유적이 가까운 곳에 산포되어 있어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관광지로서도 인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신라’라는 인상은 누구든지 갖고 있다.

이곳에서 발굴된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온화한 미소가 돋보이는 독특한 모습이지만, 브랜드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얼굴무늬 수막새’의 미소는 상당한 세월을 견디며 출토되며 금이가고 깨졌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브랜드에서는 이 점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신라 천년의 미소를 간직한’ 얼굴무늬는 그야말로 천년고도 경주를 대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얼굴무늬는 ‘미소를 머금고 상대를 맞이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도시 경주와도 부합된 이미지이다. 온화한 신라 미소로서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다.

아래 이봉직 시인의 ‘웃는 기와’의 내용을 보면, 신라 미소가 어떤 브랜드로서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경주의 사례처럼 송파 한성백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 훌륭한 브랜드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옛 신라 사람들은 웃는 기와로 집을 짓고 웃는 집에서 살았나 봅니다.
기와 하나가 처마 밑으로 떨어져 얼굴 한 쪽이 금 가고 깨졌지만 웃음은 깨지지
않고
나뭇잎 뒤에 숨은 초승달처럼 웃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웃어주면 천 년을 가는 그런 웃음을 남기고 싶어
웃는 기와 흉내를 내 봅니다.

- 이봉직 시인의 ‘웃는 기와’

■ 공주대학교 와당뽕의 활용과 실패 사례

백제문화콘텐츠사업에서 제시된 ‘백제 와당뽕’은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의 협력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이 백제 와당뽕은 공주의 특산품인 공주
밤과 백제문화의 상징인 연꽃무늬 와당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상품이다. 그러나 백제
와당뽕은 시도는 좋았으나 이른바 흥행에는 실패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와당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맛이 보장되면서도 공주의 특징을 보여주는 브랜드로
서 자리매김해야하는데, 연화무늬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발달한 백제와 어울리는 요
소는 분명하지만, 공주와 연화무늬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또한 연화무늬가 공주
를 연상케 할만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공주가 웅진백제시대의 대
표성을 갖는만큼, 웅진백제를 대변할만한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데 이것이 일반인에
게 적절히 전달되지 못하였다.

○ 시사점 도출

몇몇 사례를 종합해볼 때, 와당이라는 문양은 특정 브랜드와 공간이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옳다. 동전무늬 와당이 한성백제를 연상케 할 수 있도록 공간마다 노출시키는 전략을 1차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다.



그림 65 공주대학교에서 론칭한 와당 빵

○ 유물 활용방안 제안

■ 와당으로 거리를 꾸미자

상품을 기획하기에 앞서, 해당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석촌호수로18길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 돌마리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백제 돌마리길의 조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한성백제 문화를 시각적으로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찾는 거리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질 때 완성된다. 한때 노후한 주택으로 슬럼화된 전주한옥마을은 도로 꾸미기, 벽체 및 건물 꾸미기 등으로 도시가 재생되었을 뿐 아니라 걷고 싶은 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마카오의 세나도 광장과 같은 경우는 옛 포르투갈 식 건물과 길거리를 깨끗이 보존하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석촌동 고분군 일대는 강남권 개발로 빌라, 아파트 등 거주공간이 가득 들어차 옛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 한성백제 고유의 문양인 동전무늬 등을 이용하여 상징적인 요소로 적용하여 바닥 타일 문양이나 건물 외벽 문양 등 거리를 꾸민다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백제 돌마리길을 한층 더 걷고 싶은 길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6 포르투갈 전통 타일 문양
‘깔사다(Calcada)’ - 마카오 세나도광장



그림 67 아줄레조 (Azulejo, 이슬람문화의
영향을 받은 서유럽의 페인팅)



그림 68 마카오 세나도 광장의 모습

■ 와당을 소품 또는 음식으로 만들자

- 기념품 개발 : 돈나무(葉錢) 만들기, 동전무늬가 담긴 공예품 제작, 와당무늬 벽지, 부채, 전통가구 만들기 등이 있다. 공방에서 즉석 제작하거나 또는 기념품샵에서 완성된 제품을 판매한다.



그림 69 돈나무 모양 금속공예(말레이시아 로얄셀랑고르)

- 음식 개발 : 동전무늬 제과제빵 (쿠키, 빵, 와플 등)



그림 70 동전무늬 제과제빵

■ 와당의 무늬가 가진 의미를 전달하자

한중일의 역사서마다 백제가 등장할 때면, 백제인의 활발한 대외교류와 상업활동, 점술과 음양오행의 발달, 오락의 발달 등이 자주 언급된다. 이에 동전무늬와 백제인의 특성을 조합한 점술거리 등을 개발할 수 있다.

홍콩 템플스트리트와 같이 점술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하는 토정비결이나 오늘의 운세보기 등은 물론이며 타로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점술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동전을 활용한 점술 프로그램을 접목할수도 있다.

통인시장의 엽전 사용의 사례를 참조하여 돌마리길에서 백제 동전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71 홍콩 템플 스트리트에 조성된 점술거리

2) 대표유물 둘 : 칠지도(七支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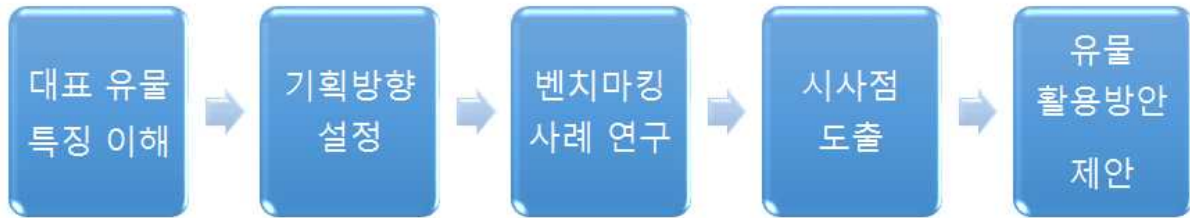


그림 72 칠지도를 활용한 상품 기획 과정

○ 상품개발에서 염두에 둔 칠지도의 특징

- 칠지도는 일본 나라현 이소노카미 신궁(石上神宮)에 전해 내려오는 철제칼로, 1873년 이소노카미 신궁의 대궁사 ‘간 마사토모’가 칼날의 명문을 발견하여 알려졌다.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중요성으로 1953년에 일본 국보로 지정되었다. (전체길이 74.9cm, 칼날길이 66.5cm)
- 칼날몸통 좌우로 3개씩 가지가 뻗어 ‘칠지도’란 이름이 붙은 신비의 칼 보검이다.
- 날몸통에 명문이 앞면에 34자, 뒷면에 27자 금으로 상감(象嵌)되어 있다.

명문은 일부 글자의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백제사신 구저 등이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한 개 및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을 보냈다. 백제왕이 계를 보내 말하기를, '우리나라 서쪽에 시내가 있는데 그 근원은 곡나철산(谷那鐵山)에서 시작됩니다. 이 물을 마시다가 문득 이 산의 철을 얻어서 성스러운 조정에 바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왕은 손자 침류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가 통교하는 바다동쪽의 귀한 나라는 하늘이 열어준 나라이다. 그래서 천은(天恩)을 내려 바다 서쪽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었으니 나라의 기틀이 굳건하게 되었느니라. 너도 마땅히 우호를 다져 공물을 바치는 것을 끊이지 않는다면 내가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노라.' 이 후로 백제는 해마다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다." 여기 나오는 백제왕은 근초고왕을 말한다.

칠지도의 의미를 넓게 보면, 한성기 백제를 전성기로 이끈 근초고왕과 석촌동 고분군 일대와 연관이 깊다.

칠지도는 칼의 모양 등으로 보아, 무기의 기능 보다는 국제 교류의 상징적인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의 해석내용은 한일관계론적인 논란이 있으나, 칠지도 가치의 핵심은 백제의 고급 기술로 제련된 명검, 대외교류의 상징이라는 점에 있다.

○ 칠지도 명문(銘文)

- 위에 기술된 칠지도의 여러 특징 가운데 이번 상품 개발에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상감기법으로 글자를 새긴다는 점이다.
- 고대에는 금이나 은으로 된 실을 이용해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문구를 칼에 새겼는데, 이를 다른 말로 입사(入絲)기법이라고도 한다. 금실을 이용하면 금입사(金入絲), 은실을 이용하면 은입사(銀入絲)라고도 부른다.
- 동시대 삼국 중에서 뛰어난 제련 기술을 자랑했던 한성백제기의 기술이 적용된 칠지도를 상품화하되, 기존에 칠지도 모양에 초점을 맞춘 상품화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상감기법에 의해 문장을 새겼다는 점에서 착안한 상품 개발을 시도하고자 한다.



(앞면) 태△ 4년 5월 16일은 병오인데, 이날 한낮에 수백번이나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온갖 적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만하다. △△△△가 만들었다.

(뒷면)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 기축가 성음을 내었으므로 왜왕 지늄을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 *해석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함.

○ 기획방향 설정

-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 때에 일본에게 전달된 명검으로서, 독특한 형태의 철제 명검이자 한성백제의 제련기술, 대외교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게임, 만화 등에서 다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으며,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5 게임캐릭터에 활용된 칠지도

- 각국 명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관광자원화

영국 아더왕의 엑스칼리버, 프랑스 서사시 《롤랑의 노래》에 등장하는 롤랑의 성검 뒤랑달 등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명검은 각각 전설이나 문학 작품 등을 통하여 고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 이야기를 확장 또는 재구성 파생되어 현재는 이를 스토리텔링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화·게임 등 관련 콘텐츠 산업에도 친숙하게 이용된다.

예를 들어 아더왕의 엑스칼리버는 웨일즈 지방의 전설에서 출발하였다. 엑스칼리버는 아더가 왕이 되었을 때 호수의 요정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엑스칼리버의 기능 또한 강조되는데, 엑스칼리버 칼집의 주인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며, 검 자체도 명검이었다고 한다. 여기에도 이야기가 덧붙여지는데, 마법사 멀린이 아더왕에게 검과 칼집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냐고 물었을 때 아더왕은 검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멀린은 ‘적을 공격하는 검보다는 몸을 지키는 칼집이 더 중요하다’고 아더왕에게 일러주어, 아더왕에게 엑스칼리버가 주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왕이 되라는 뜻임이 강조된 것이다. 그리하여 아더왕은 왕국을 통일하는 전투와 로마 제국의 침공을 막는데에 엑스칼리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엑스칼리버는 ‘돌에 꽂혀져있는 명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돌에 꽂혀있는 검은 원래 엑스칼리버가 아니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명검 엑스칼리버 이야기가 확장되어 ‘돌에 꽂혀있는 엑스칼리버’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돌에 꽂혀있는 명검’에 대한 이야기도 아더왕 전설에서 유래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아더왕이 소년이었을 때 엑터와 케이라는 사람과 함께 마상시합에 참여하기 위해 런던으로 가던 중, 케이가 여관에 검을 두고 왔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여관으로 돌아갔으나 여관은 잠겨있었고, 아더는 바위에 꽂혀져 있는 검을 뽑게

된 것이다. 검에는 ‘이 검을 뽑은 자야말로 브리튼의 왕이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 뽑기를 시도하였으나 아더왕이 뽑게 된 것이다. 이 검을 엑스칼리버가 아니었으며, 아더가 이 검을 잃어버린 후에 엑스칼리버를 얻게 된다.²⁰⁾

각국 명검의 사례처럼, 칠지도를 백제 전성기를 이룩한 근초고왕의 명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명검으로서의 이야기를 담아 전달하고자 한다. 칠지도의 이야기를 담은 체험요소와 칠지도 디자인의 장신구 등의 상품 개발, 칠지도를 닮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칠지도를 통해 백제 고유의 제련방식을 이용한 주방칼 등 생활용품의 금속 상품을 제작할 수 있다.

○ 벤치마킹 사례 연구

▪ 체험요소 활용(엑스칼리버 뽑기 체험)

엑스칼리버가 바위 속에 꽂혀져 있으며 아더왕처럼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 검을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엑스칼리버 뽑기 체험은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체험요소가 될 수 있다. 엑스칼리버 뽑기라는 잠깐의 시도 속에서 아더왕 명검 전설 이야기를 쉽게 각인할 수 있으면서도 기념촬영을 남길 수 있다.



그림 76 독일 레고랜드에 전시된 엑스칼리버 뽑기 체험

▪ 특징적인 제련기술을 이용한 상품 개발

시리아 다마스쿠스 지역은 제련 기술이 뛰어나 유럽의 검보다 뛰어난 수준으로 평가되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검을 ‘다마스쿠스 검’이라 칭하며, 여기에 쓰이는 재료를 ‘다마스쿠스 강(Damascus steel)’이라 부른다. 다마스쿠스 강의 특징은 표면에 특유의 물결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날카로우면서도 탄성이 높다.

이러한 다마스쿠스의 제련 기법은 17세기까지 생산되었다가 기술의 명맥이 끊겼고, 최근에 들어서야 완전 재현이 가능해졌다. 현재에도 이 기술은 고급스러운 제련 기술로 인정받아, 주방칼 등 날카로움과 내구력을 요하는 생활용품 및 장식용품 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20) 영웅열전, 가가미 다카코, 최수진, 2001. 9. 15., 도서출판 들녘

○ 시사점 도출

명검은 다른 도검류와는 다르게 특이한 모양을 지녔으며,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여야 할 것인가가 칠지도 활용의 승패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흔히 엑스칼리버 하면 ‘엑스칼리버=바위 위에 꽃힌 검, 선택받은 자만이 뽑을 수 있는 검’으로 쉽게 연상된다. 칠지도에 대한 이미지도 ‘한일관계의 논란’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안에서는 칠지도에서 전해지는 전설이나 이야기요소보다는 칠지도 모양이 갖는 특색을 살리는 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77 다마스쿠스 제련 기술의 물결무늬



그림 78 다마스쿠스강 주방칼
(사카이 타카유키)



그림 79 다마스쿠스검 브로치



그림 80 다마스쿠스강
골프채(Odyssey)

○ 유물 활용방안 제안

■ 칠지도의 체험요소와 기념품 제작

- 체험요소 칠지도로 전하는 메시지 : 칠지도 조형물에 글씨를 적고, 조형물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를 메시지로 변환하여 네트워크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 기념품 1, 칠지도 야광봉

공연관람도구로서 ‘칠지도 야광봉’을 만들 수 있다. 야광봉은 값이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보급할 수 있다. 잠실 등 송파구 일대에는 공연과 야간행사가 많이 추진되는 곳 중 하나다. 공연관람도구로서 칠지도 야광봉을 공연 때마다 보급하여 사용토록 한다.



그림 81 칠지도 야광봉



그림 82 칠지도 목걸이
(한성백제박물관 뮤지엄 숍)

- 기념품 2, 칠지도 미아보호용 장신구 제작

칠지도 검신(劍身)에 명문을 적어놓은 것에서 착안하여, 칠지도 모양의 미아보호용 장신구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문을 적어놓았던 공간에 아이의 이름이나 부모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목걸이형·가방 부착형 장신구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도 칠지도 모양의 브로치, 목걸이 등을 만들 수 있다.

- 기념품 3, 생활용품 제작

백제의 제련기술을 접목한 금속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백제 돌마리’ 또는 ‘칠지도’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먹을거리 : 7가지 맛이 함유된 칠지도 과자 만들기

칠지도의 일곱 가지 가지모양이 있음을 착안하여, 가지 끝에 7가지 다른 맛을 첨가하여 먹을 수 있는 빵튀기 등의 간단한 과자를 만들어 파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프레즐 전문 업체인 앤티앤스 프레즐에서의 ‘레몬에이드+프레즐’의 세트 판매처럼 음료수와 과자의 조합에 대한 시도를 해볼 필요 있다.



그림 83 빵튀기로 만든 월미도 지팡이과자

3) 대표유물 셋 : 돌무지무덤(석촌동고분군 3호분)



그림 84 돌무지무덤을 활용한 상품기획 과정

○ 돌무지무덤의 특징

- 석촌동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한성백제의 돌무지무덤은 사각형 모양이 피라미드식으로 쌓여진 듯한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백제 초기는 건국의 시조 온조와 비류가 고구려계통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구려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점차 독자적인 문화로 변모하였다. 무덤의 양식 또한 변화하였는데, 이를 잘 반영해주는 것이 석촌동 고분군의 백제 양식 무덤들이다.
- 특히 이곳 석촌동은 돌무지무덤으로 인해 돌이 많아 ‘돌마리(石村)’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명적 특징을 잘 활용하여 석촌동 고분군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85 석촌동고분군 3호분(좌) 및 조감도(우)

○ 기획방향 설정

- 일반적으로 돌무지무덤은 아래에서 위를 향해 보이는 제단 형태의 모습을 연상한다.
-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드론이나 위성 촬영을 통해 보이는 돌무지무덤이 정사각형 형태가 반복되는 기하학적 문양을 가지고 있음을 상품기획에 활용하고자 한다.
- 일명 ‘돌마리길’이라고 불리는 인근 지명의 어감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돌마리’라고 하는 지명의 어감(돌돌 말린다)을 이용해 이를 상품에 활용한다.
- 상품기획에는 첫째 돌마리김밥, 둘째는 떡과 케익, 셋째 돌마리 액세서리(귀걸리, 열쇠고리, 가방 등) 등으로 한다.

○ 유물 활용방안 제안

▪ 먹거리

사각형 또는 피라미드형태로 개발된 음식을 종종 볼 수 있다. 사각형 틀로 만들어 내는 사각김밥과 함께, 다양한 맛을 겹겹이 쌓아 올린 떡이나 케익, 초콜렛 등이 판매되고 있다.

- 돌마리 김밥

돌무지무덤 형태에서 착안한 먹거리를 통해 문화재를 생활밀착형 소재로 만든다. 특히 ‘돌마리’라는 단어는 ‘김밥말이’와도 어감이 비슷하여 ‘무엇인가를 돌돌 말아놓은 형태’를 연상케 하기도 하여, ‘돌마리 김밥’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린다. 석촌동고분군의 상징인 네모 모양을 활용하여 석촌동고분군의 대표적인 분식거리로 만드는 방향을 고려할만 하다. 돌마리 김밥과 곁들여 먹는 음식과 함께 판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림 86 돌마리 사각김밥

- 돌마리 케익

돌무지무덤 모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음식으로서 디자인하고, 계단마다 각각의 맛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석촌동 카페거리의 공통적이면서도 차별적인 디저트 메뉴로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카페거리 각각의 매점에서 재해석하여 만드는 방안과, 공통된 모양의 케익을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림 87 3가지맛 돌마리 3호분떡



그림 88 돌마리형 아이크림케익



그림 89 돌마리 초콜렛



그림 90 돌마리 딸기생크림케익



그림 91 돌마리 백설기케익

■ 액세서리

- 액세서리 제작

돌무지무덤 형태를 활용한 각종 액세서리를 제작할 수 있다. 돌무지무덤 모양의 사각 패턴은 열쇠고리, 장신구 등의 문양 및 도형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림 92 돌마리 형태 귀걸이



그림 93 돌마리 형태 패턴 활용한 에코백

IV.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향후 과제 제시

IV.1. 석촌동고분군 연계한 사업 실행계획 수립



이번 제안에서 와당문양 · 칠지도 · 돌마리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적 가치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템을 다양하게 기획하였다. 상품기획의 기초단계인 콘셉트가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안하는 사업 콘셉트를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 상품들을 직접적으로 판매 유통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요소로 어떤 것을 앞세울 것인가와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 현실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업 실행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1)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번 상품 기획은 한성백제의 이야기와 특징에 기반한 대표이야기 및 사회적경제에 활용 가능한 상품 선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기 위해 역사문화 전문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다. 와당문양 · 칠지도 · 돌마리라는 소재(키워드)와 ‘돌마리 김밥’ 등 세부 상품 콘셉트의 적정성을 확인하였고,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의 확인도 중요한 점검사항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상품을 선정할 경우 향후 실행 방향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와당문양 · 칠지도 · 돌마리라는 한성백제 대표 키워드와 함께 역사문화적 가치 발현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다음 과제로는 상품 추진을 위한 마케팅과 홍보 전략, 관광사업과의 연계, 상품 추진 이후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래 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상품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의 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예상되는 사업 주제와 차기 사업과제를 제안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사업기간, 예상 사업내용 등은 각 지자체와 유관단체에서 실시한 유사연구 사례를 참조하였다.

유형	제안상품
공간 적용	○와당 벽화, 바닥, 타일 꾸미기
기념품	○동전문양 : 포장지, 벽지, 돈나무(搖錢樹), 부채, 전통가구 ○칠지도 : 야광봉, 미아보호용 장신구, 칠지도 부적(그림+명문) ○돌마리 : 네모 돌무지모양 장신구 ○추가상품 : 명품 백제바둑판, 세발토기모양 용기
먹을거리	○동전문 : 동전문양 빵과 쿠키/와플 ○칠지도 : 7가지맛 칠지도 과자, ○돌마리 : 돌마리 김밥/케익/초콜렛 ○추가상품 : 백제차 + 디저트 + 세발토기 그릇
체험요소	○칠지도 체험프로그램 개발(메세지 보내기 등) ○점술거리 조성 ○백제동전 유통장치 및 프로그램 마련

표 4 제안 사업 요약

유형	사업주제	예상 사업 기간	예상 사업비 (천원)	예상사업규모 및 내용
----	------	----------------	-------------------	-------------

- 21) 유사사례 :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56,000천원, 연구기간 2007-10-02 ~ 2007-12-28
- 22) 유사사례 : 충청남도, “백제옛길 조성 연구”, 45,000천원, 연구기간 2012-03-01 ~ 2012-09-18
- 23) 유사사례 : 경주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용역” 17,800천원, 연구기간 2015-07-13 ~ 2015-08-11
- 24) 유사사례 : 정읍시, “대표음식개발및 음식점문화수준향상 사업 연구용역” 57,600,000원, 연구기간 2016-06-16 ~ 2016-11-16
- 25) 유사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연구” 29,000천원, 연구기간 2009-09-02 ~ 2009-12-31
- 26) 중국의 인상서호, 인상유삼저 등 지역주민참여형 공연은 지역민에게는 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은 관광활성화에 큰 영향을 받음. 또한 관광요소의 필수라 할 수 있는 야간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가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추세임.
- 27) 유사사례 :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시연장 개관기념 공연 기획·제작 위탁용역” 150,000천원, 연구기간 약 5개월
- 28) 유사사례 : 청양군, “백제역사자원 활용 축제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20,000천원, 연구기간 2015-07-23 ~ 2015-10-21
- 29) 유사사례 :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 체험북 제작 용역” 118,484천원, 연구기간 2012-10-11 ~ 2013-03-28

유형	사업주제	예상 사업 기간	예상 사업비 (천원)	예상사업규모 및 내용
공간 구성	석촌동 일대 공공 디자인 적용안	4개월	60,000 ²¹⁾	○석촌동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춰 한성백제 대표상품을 적용해 배치하는 구성안(간판, 길거리, 가로등, 건물외벽, 상점, 편의시설, 안내시설, 화장실, 휴게의자 등) 제시, -송파구 등 관련지자체 역사문화 경관조례안 마련 ○역사문화중심지구 디자인적용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고도古都-경주, 부여 등, 일본 아스카무라 등) ○주민설명회 실시, 주민협조방안 마련 ○주민 및 건물주 대상의 사업 이해방안 마련
	석촌동 테마길 조성	6개월	50,000 ²²⁾	○공공디자인 적용안이 마련된 이후 이에 맞춰 테마길을 조성(공공조형+보물찾기+샵+스토리텔링+이벤트) ○석촌동고분군 테마코스선정(근초고왕의 길 등 3개루트) ○테마코스별 스토리텔링, 안내 미니가이드북 발간
공예품 과 기념품	한성백제 역사문화 기념품 개발	2개월	20,000 ²³⁾	○1차 제시된 대표 선정상품의 현실성, 타당성 검토 ○한성백제와 현재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기념품 개발 ○선정상품별 세부 개발안 제시 ○마케팅 전략 및 활성화 방안, 홍보방안, 상품화로 모색 ○디자인 검토
먹을 거리	한성백제 식문화 연계 먹을거리 개발 및 스토리 텔링	5개월	60,000 ²⁴⁾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먹거리 메뉴(돌마리 김밥, 칠지도 7가지맛 과자 등) 개발 및 스토리텔링 ○한성백제 식문화 스토리텔링(풍납토성에서 발굴된 복어, 도미 등) 및 과거와 현재가 결합된 식문화 요소 개발(백제식 복어요리 등) ○한성백제 음식그릇(밥/반찬 그릇, 술잔, 찻잔 등) 개발 ○맛과 레시피, 연계음식 개발(음료수 등) ○음식디자인, 대표브랜딩 개발 ○석촌동카페거리, 한성백제지구와의 연계안 마련, 홍보 마케팅 방안 마련

유형	사업주제	예상 사업 기간	예상 사업비 (천원)	예상사업규모 및 내용
체험요 소	석촌동 체험관광 상품마련	3개월	30,000 ²⁵⁾	○석촌동일대 관광체험상품 현황 분석 ○상설 및 예약 관광체험상품 개발 및 운영안 마련
	지역주민 참여형 공연제작 26)	6개월	150,000 ²⁷⁾	○국내외 주민참여형 공연의 성공사례 조사 및 분석, 주민 참여방안 마련 ○공연 연출기획, 공연 스토리 개발, 무대, 조명, 화면 등 무대요소 구상 및 추진 ○홍보, 운영계획, 공연 및 부대 행사 기록 ○정기 공연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제시
	역사문화 자원활용 축제콘텐 츠 기획	3개월	20,000 ²⁸⁾	○ 축제추진여건 및 국내외 사례분석 ○ 축제 추진전략 및 타겟 설정, 축제 주제 개발 ○ 개최기간, 시기, 장소, 목표관람객과 대상 등 구체화 ○ 축제 실행계획 수립, 단계별 중장기 축제 추진안 마련
	한성백제 지구 관광 가이드북 제작	10개월	100,000 ²⁹⁾	○한성백제지구의 자가체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문화 체험가이드북 제작. 한성백제지구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며 지역 관광활성화 및 이미지 향상 도모 ○한성백제지구 및 연계 유명관광지, 나이트라이프(Night Life), 지역 유명음식, 공연정보, 숙박정보, 교통정보 등 조사 및 소개, 지역관광가이드북으로서의 활용 ○테마별 관광코스과 스토리텔링 개발

표 5 제안사업에 따른 향후 예상 연구 내용

2) 대표적 키워드와 추진 방향 확정

각 유형별로 의견수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와당문양·칠지도·돌마리라는 대표적 키워드를 송파 한성백제의 상징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후손 논의와 연구개발, 교육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

그 속에서 개발과정과 마케팅 전략, 관광사업과의 연계성 및 개발상의 현실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টে은 어떤 것이 될지, 또한 어떤 상품에 더욱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차후 구체적인 개별사업수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번 제안에서 판단하는 계획 및 향후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향후 지속 개발과제’에서 제시한다.

IV.2. 향후 지속 개발 과제

1) 백제 유적지구와의 연계관광요소 접목

○ 대표유산 3종의 브랜드이야기 개발

본 사업 과정에서 동전문양, 칠지도, 돌마리 형태 등 대표유산 3종이 선정되었고, 다음단계에서는 선정유산의 브랜드이야기 개발이 필요하다. 브랜드이야기란 해당 소재에 대해 역사문화적 사실관계 등에 기반을 두고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분류	NO	주제	상품화 유산
한성백제 도시계획	1	고구려 온조 왕자, 한성에 백제를 세우다	
	2	기록에 나온 하남 위례성은 어디일까?	
	3	한강의 옛모습과 백제인들의 치수(治水) 기술	
	4	왕성과 왕릉으로 조성되는 고대 도시디자인	왕도길
한성 백제의 왕성	5	1500년을 버틸만큼 튼튼한 토성을 쌓은 백제인들	
	6	풍납토성의 해자,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지다	
	7	백제에도 ‘종묘’가 있을까?	
	8	풍납토성 발굴 이야기	
	9	문화재 보존지침을 만든 풍납토성 ‘굴삭기 사건’	
	10	자연지형 그대로 지은 왕성, 몽촌토성	
	11	88올림픽드림과 몽촌토성 발굴 30년사	
한성 백제의 왕릉	12	백제의 고분박물관, 석촌동고분군	
	13	한국의 피라미드, 돌무지무덤	대표유산 2
	14	석촌동고분군 3호분의 주인은 누구?	
한성 백제의 문화교류	15	방이동 고분군은 신라 유적이다?	
	16	당대최고트랜드 ‘메이드인차이나’수입흔적, 동전문	대표유산 1
	17	왜왕에게 하사한 백제 왕세자의 선물, 칠지도	대표유산 3
한성 백제의 민속문화	18	해양강국 백제의 민고 보는 조선기술	백제의 배 광장
	19	토기로 살펴보는 백제인들의 식문화	세발토기
	20	한성백제, 진짜 바둑 때문에 망했나?	명품바둑판

표 6 한성백제 대표 이야기 20선

브랜드이야기 개발의 1차대상은 와당의 문양(특히 동전문), 칠지도, 돌마리(모델은 3호고분군) 등이며, 2차대상은 세발토기, 명품바둑판, 백제의 배광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상품대상군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개발하여 한성백제 유적지구의 연계관광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과거 · 현재 · 미래를 아우르는 관광체험상품 개발

○ 문화유산 활용상품 개발과 실행

한성백제 유적과 유물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지역관광체험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7년 현재 석촌동고분군과 몽촌토성, 풍납토성에서 ‘되살아나는 한성백제 고대역사 부활의 꿈’,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한성백제 바람들 마을’이라는 주제로 생생문화재가 시행중이나, 주로 학생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해진 날짜에 시행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프로그램에 좀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으로의 발전은 향후 과제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상시체험, 한성백제 연계관광 상품개발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유적지 밀집 지역에서의 현지 여행사의 역할, 관광 가이드의 역할, 관광상품의 개발과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여 송파 한성백제관광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라고도 경주의 유적을 권역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경주 시티투어’, ‘경주 택시 관광’ 등의 국내 사례와, ‘말레이시아의 경주’라고도 불리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의 가이드 투어, 관광상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말라카의 경우에는 도보이용이 편리한 차 없는 거리를 많이 조성하였고, 인력거 · 유람선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연계 관광이 이루어진다.

○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상기와 같이 문화재관광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 활용프로그램의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2016년 11월에 설립되어 2017년 6월 마을기업에 선정된 ‘한성백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한성백제 생생문화재사업을 5년째 시행하고 있는 ‘문화살림’ 등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관광활성화 제반에 필요한 각각의 활동을 나누어 진행하였을 때 한성백제 연계관광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 있는 백제 · 아스카유적 관련 유적산포지인 ‘아스카무라’에서는 ‘일본인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주제와 함께 아스카무라 유적유물 연계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전국의 많은 숫자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94 아스카데라의 서쪽에 있는 아스카 미즈오치 유적

단체명	주체	목적	사업내용
아스카무라 관광개발공사	공사	환경정비, 관광시설 운영관리	자연환경 보전과 정비, 관광시설 설치·관리운영, 문화재 관리 운영
아스카무라 지역진흥공사	공사/ 주민	소득향상, 농지이용촉진, 주민복지향상	특산물 판매, 유통, 판매소 운영, 유희농지 활용 등
고도 아스카 보존재단	민간/ 전문가	보존·활용·주민지원 사업	문화재보존, 주민지원, 경관정비, 역사공원 유지관리, 안내소·숙소 경영, 다카마쓰 고분 벽화관 운영 등
농사조합법인 고향아스카	민간	소득향상	특산물 판매, 유통, 판매소 운영
ASCVA	민간	경관보전에 대한 인력지원	사적지 주변 경관정비 활동 등
대화숙(大化塾)	민간/ 전문가	마을 조성 연구, 계획수립·추진	아스카무라 활성화에 대한 월례 연구회, 계획 추진
아스카무라 전승예능보존회	민간	무형문화보존	무형문화 보존, 전승, 공연
아스카교 관광협회	민간	문화재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유적에서 실제 행해졌던 행동의 체험행사 운영. 고대 유리구슬 제작 재현행사 등

출처 : 문화재청, 《고도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117~162p, 2014

표 7 일본 아스카무라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공공조직 현황

아스카무라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5천여 명 정도뿐인 작은 시골마을이지만, 공공기관과 전문가 집단, 또는 민간인이 각각 단체의 주체가 되어 관광문제, 특산물 유통문제, 문화재 보존 및 활용문제, 경관정비문제, 사업발전에 관한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송파구 일대를 역사문화자원과 현대적 관광자원이 결합된 새로운 요소로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본의 백제·아스카 문화유산 활용 등의 선진 사례를 보다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안한 사업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성백제지구도 아스카무라의 사례처럼 민간집단, 전문가집단, 공공집단의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성백제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어 지역의 가치 보존과 상승 등, 지역에 파생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성백제지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자치구, 2차적으로는 서울시와의 협력 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주체	추진방향	사업내용
자활기업	제품, 식품(공급 및 유통이 가능한 품목) 생산 및 공급	○ 공예품, 기념품 만들기 : 백제 제련기술로 만든 생활용품, 포장지, 벽지, 돈나무 공예품, 부채, 칠지도 야광봉, 미아보호용 장신구, 돌마리모양 네모 장신구 등 ○ 유통, 공급형 식품 생산 : 돌마리케익과 빵(냉동 생지), 동전 무늬 쿠키 ○ 제품 공급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지역상권
마을기업과 지역 상권	당일 즉석 식품 생산	○ 즉석 식품 생산 : 돌마리 김밥, 동전무늬 빵
	상품 판매	○ 공방 및 기념품점 운영 ○ 음식점 및 카페 운영
	경관정비활동	○ 외당 벽화, 바닥 타일 꾸미기 등 거리정비 ○ 거리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문화유산 활용사업 운영	○ 체험프로그램(마을 공연 등) 참여 및 추진, 지역이야기꾼의 해설 안내
문화유산 활용기업, 연구소, 사회적기업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 활성화 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 체험 프로그램 기획 : 칠지도 체험프로그램 개발, 점술거리 조성 기획, 백제동전 유통장치 및 프로그램 마련 ○ 지역 활성화 운영 컨설팅 : 지역 활성화에 대한 단계별 발전 방안 연구, 주민지원사업 연구, 정기 및 수시 체험행사 기획, 한성백제지구 사업권역 공동기업화 추진(기업화된 전통시장 참조) ○ 단계별 상품 개발 추진

자원봉사단체	경관보전에 대한 인력지원	한성백제지구 주변 경관정비 활동, 문화재 경관정비
비영리 민관학 모임	마을 조성화 활성화 연구	지역 활성화에 관한 정기 연구회(학술대회, 토론회, 강의,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경영지원, 시장조성 지원, 협동화 촉진, 재정지원 등	
송파구	‘한성백제지구 역사문화도시(가칭)’ 권역 설정, 문화재와 주변경관이 어우러지는 ‘한성백제지구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마련	
서울시	한성백제지구 관광활성화 추진의 규제가 되는 사항 검토 민간의 문화유산 활용 참여에 대한 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서울시 역사문화 관광사업 연계안 마련[조선권역-경복궁 등, 한성백제권역] 한성백제지구 문화재와 환경 보존, 활용을 위한 종합 정비계획 수립 한성백제지구 정비기금·연계활용사업 교부금 조성, 보존활용재단 추진	

표 8 제안사업에 따른 각 기관별 예상 사업 추진방향과 내용

○ 실질적 추진을 위한 단계별 사업 실행

이번 사업 제안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였지만, 모든 분야를 한번에 추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진하기가 가장 쉬운 먹거리, 공예품과 기념품 개발을 우선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시킨 다음에 거리경관 정비를 점차 확대시켜나가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창의성을 가진 민간조직, 지역활성화의 직접적 영향력을 경험하는 지역주민의 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적기관은 민간조직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실행한다. 다만 경영지원, 사업비지원 등 제반 지원사항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송파구, 서울시가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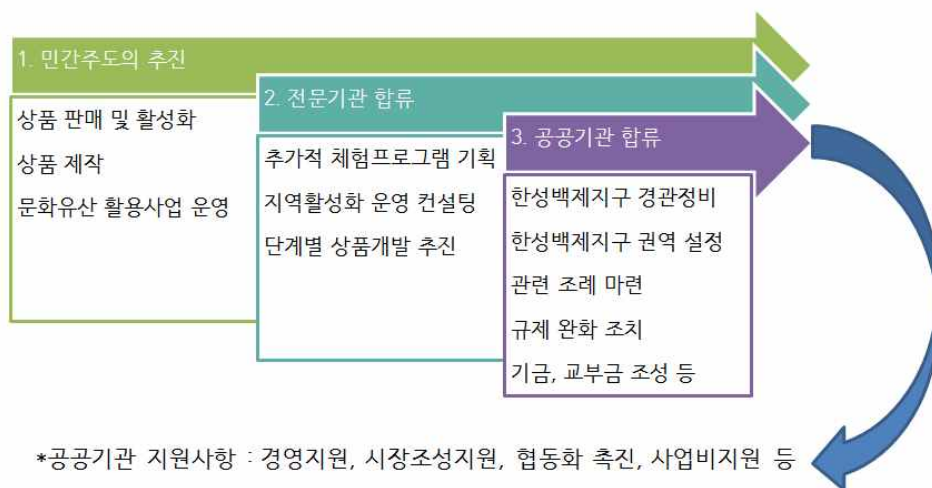


그림 95 단계별 사업실행에서의 각 조직의 역할

○ 한성백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유통을 위한 교육아카데미 추진

잠자고 있던 한성백제를 매개로 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제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한성백제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 선발하여 이들이 지역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성백제 교육아카데미를 구성하여 한성백제 기초역사교육, 국내외 유사 고도지역 선진사례 학습, 관련 파생상품의 이해 및 개발 교육, 도시 민박업 창업 및 운영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3) 관광상품의 다변화

○ 주력 상품의 특화

앞으로 송파구 한성백제 사업대상지에 다양한 아이템이 개발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력 상품의 특화’이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또는 관광객이 송파구 한성백제를 생각해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인 주력상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전주’하면 ‘비빔밥’이 연상되고 ‘춘천’하면 ‘닭갈비’가 쉽게 연상된다. 해외사례도 마찬가지인데, ‘마카오’, ‘라스베이거스’하면 ‘카지노’가 연상되는 식이다.

따라서 송파구 한성백제하면 맨 처음 떠올릴 만한 주력 상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가령, 석촌동고분군에 실재하는 네모 모양의 무덤을 착안하여 만든 ‘돌마리김밥’을 메인 아이템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석촌동’하면 ‘돌마리김밥’이 연상될 정도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제안한 상품의 현실화를 위한 개발 추진

앞서 보고서에 제안한 상품을 유형별로 표를 제시한 바 있다. 유형은 ‘사업대상지의 공간구성’, ‘공예품과 기념품’, ‘먹거리’, ‘체험요소’ 등 4가지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공간구성 및 공예품 등에 대한 것이라면 디자인을 고민하거나 실용성을 판단하고, 먹거리에 대해서는 맛과 식품 브랜딩, 체험요소라면 재미요소와 체험대상, 이야기요소 개발 등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제안한 상품이 보다 현실화되고 지속가능한 상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단계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개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주에서 개발한 ‘공주 와당빵’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한 바 있다. 공주 와당빵은 개발은 훌륭하게 하였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와당빵은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에서 스토리를 입히고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맛을 살렸다. 이밖에도 특허청에 상표등록과 디자인등록을 하였고 이를 위해 산학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 끝에 와당빵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공주 와당빵’에

대해 게시한 블로거들의 글을 많이 찾기 어렵다.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공주 와당 빵’에 대한 블로그 내용은 ‘백제문화제’에서 맛본 이벤트적인 요소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이와 비슷하나 지역 전통찻집 등에서 만든 ‘부여 연꽃빵’이 자주 검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분야별 연구가 논의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하나의 상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보조상품의 역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돌마리 김밥’을 만든다고 하면 이에 곁들여 먹는 떡볶이나 순대, 튀김 등 특색 있는 분식의 개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먹는 음료수는 한성백제인이 즐겨마셨을 법한 음료가 같이 등장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상품이 실제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전략이 구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발과정과 홍보과정, 지속적 판매를 위한 활로 확보와 연계상품 기획은 물론이며, 상품에 역사문화적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법이나, 기존 이야기를 재창조하여 새로운 파생상품의 여지를 만드는 전략 또한 고민되어야 한다.

○ 한성백제 브랜드의 다양한 상품 개발

이번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관광기념품 성격의 상품 추진 이후에, 한성백제를 테마로 하는 보다 폭넓은 분야로 진출할 것을 제시한다. 차후 개발될 상품이 송파구 한성백제의 ‘특산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야 한다. 한성백제의 문양, 대외교류, 제련기술, 의복, 놀이, 생활문화 등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많다. 사업 타당성 검토 후에 한성백제 브랜드 론칭에 대한 논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거리 체험요소 및 하드웨어적 요소의 확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활성화되었을 때, 하드웨어적 요소를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연구된 ‘백제 돌마리길’ 외에도 몽촌토성·풍납토성·방이동고분군·석촌동고분군을 잇는 종합적인 한성백제길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적 개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의 동의 방안과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참여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각각의 유적에는 또 다른 세부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백제 돌마리길’처럼 돌무지무덤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근초고왕’이라는 인물 등 그밖에 역사문화적인 요소를 곁들여 개발할 수 있다.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석촌동 카페거리, 석촌호수공원, 롯데월드와의 연결점을 찾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2017년 6월 인쇄

2017년 6월 발행

석촌동고분군 사회적경제 연계사업 기획 및 전략개발

연구 기관 :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편집/제작 :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2길 3(용강동)

Tel:02-719-1495 Fax:02-719-1497

발 행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

Tel:02-353-3553 Fax:02-383-3553